
국립공예박물관 설립을 위한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연구

- 최종 보고서 -

2019.12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립공예박물관 설립을 위한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주)메타기획컨설팅 대표이사 이 승 훈

목 차

1. 과업 개요	1
1.1 과업 개요	3
1.2 과업 추진 관점	4
1.3 과업수행 프로세스	5
2. 환경 분석	6
2.1 분석 프레임	8
2.2 정책적 차원	9
2.3 공예의 현재와 박물관 현황	14
2.4 공예 기관 및 공간 현황	19
2.5 환경분석 시사점	24
3. 사례 검토	25
3.1 조사 관점	27
3.2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28
3.3 해외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44
3.4 종합 시사점	55
4. 심층인터뷰	56
4.1 인터뷰 개요	58
4.2 주요 이슈별 인터뷰 내용	60
4.3 인터뷰 결과 종합	80
4.4 종합 시사점	81

5.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82
5.1 라운드테이블 개요	84
5.2 주요 이슈별 내용	85
5.3 이슈 종합	93
6. 제언과 추진 방향성	94
6.1 주요 논의 결과	96
6.2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점	97

1. 과업 개요

1.1 과업 개요

1.2 과업 추진 관점

1.3 과업수행 프로세스

1 과업 개요

1.1 과업개요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공예문화산업의 규모는 문화콘텐츠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에 비해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위축되는 반면 소비자들의 니즈 변화에 따라 생활 속 개개인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공예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지역·소재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공예문화의 우수성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 공예 문화 확산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의 전통공예문화의 우수성을 내·외국인에게 알리고, 전통적 제작 기술·기법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공예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식 제고
- 우리나라 공예문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서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에 대한 공예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과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

□ 주요 조사 및 연구 내용

- 국내·외 공예문화 현황 및 경향(트렌드) 조사
- 공예박물관 국내·외 유사사례 현황 조사
- 공예분야 전문가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한 국립공예박물관 설립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

□ 과업의 기간

- 2019. 9. 24 ~ 2019. 12. 23 (약 3개월)

1.2 과업 추진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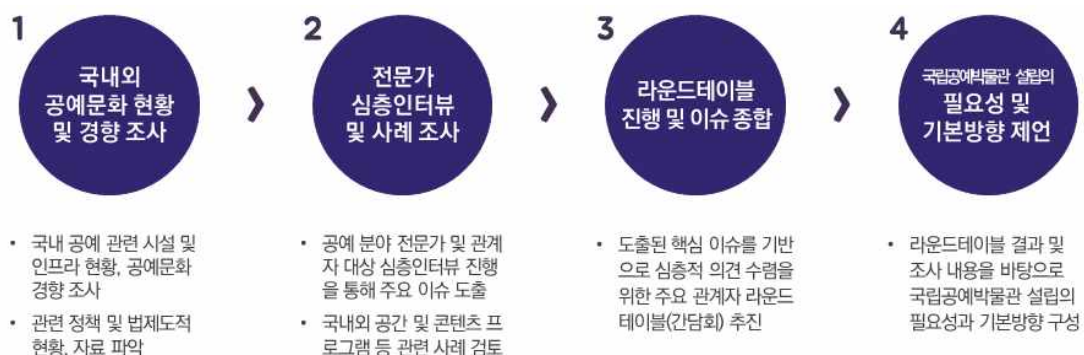
□ 과업에 대한 관점

- 공예계의 현황과 현장의 요구, 정책적 포지셔닝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립 공예박물관의 설립 필요성을 검토
 - 공예계의 인프라, 정부의 지원 정책, 인력 양성, 공예 관련 단체 및 창작자, 기업의 활동 등에 대한 진단과 검토 뿐 아니라 공예계의 특수성, 현장의 요구사항,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 시민들의 니즈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촘촘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위한 심층인터뷰와 수요 조사를 통해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 필요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함
- 공예문화산업의 가치 제고 및 대중적 확산을 위한 관점에서 현장의 소비자들의 요구와 필요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 저가 대량생산 제품에 밀려 침체된 공예문화산업의 가치 제고와 함께 공예상품의 대중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소비자들의 요구와 취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향점에 발맞추되 객관적인 관점 수립과 의견수렴을 통해 국립공예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기본방향을 도출함
 - 우리나라 공예문화의 현대적 계승·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정책과 결합된 정책적 지향점을 갖되, 객관적인 의견 수렴 과정 및 연구 관점을 수립,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 필요성 및 당위성을 다각적으로 확인 도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함

1.3 과업수행 프로세스

-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국내외 공예문화 현황 및 경향 조사부터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사례 조사, 라운들이블 진행 및 이슈 종합, 국립 공예박물관 설립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제언 등의 과업을 구조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그림 1-1] 주요 과업 내용 및 추진 프로세스



2. 환경 분석

2.1 분석 프레임

2.2 정책적 지원

2.3 공예의 현재와 박물관 현황

2.4 공예 기관 및 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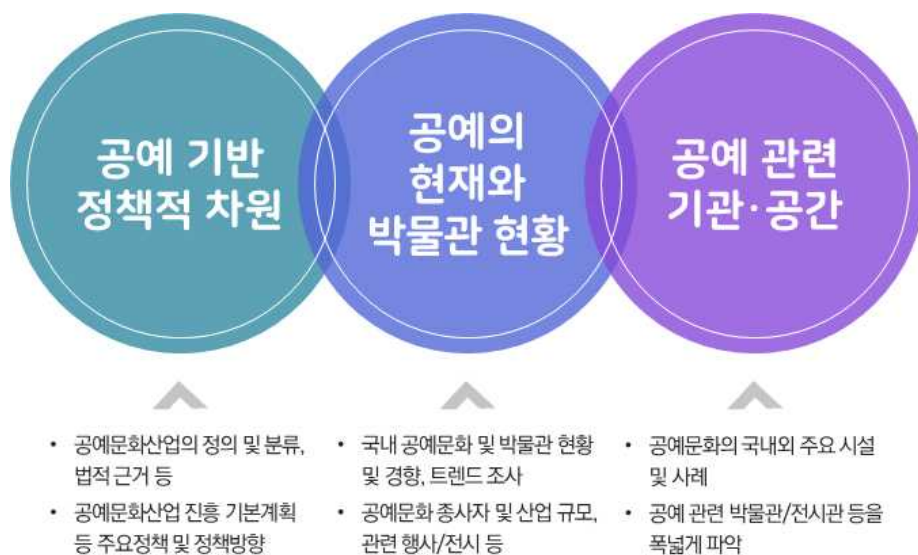
2.5 환경분석 시사점

2 환경 분석

2.1 분석 프레임

-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공예문화산업 환경을 다층적 차원에서 분석해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함
- 공예 기반 정책적 차원
 - 공예문화산업의 정의 및 분류, 법적 근거 등
 -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 및 정책방향
 - 공예의 현재와 박물관 현황
 - 국내 공예문화 및 박물관 현황 및 경향, 트렌드 조사
 - 공예문화 종사자 및 산업 규모, 관련 행사/전시 등
 - 공예 관련 기관·공간
 - 공예문화의 국내외 주요 시설 및 사례
 - 공예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을 폭넓게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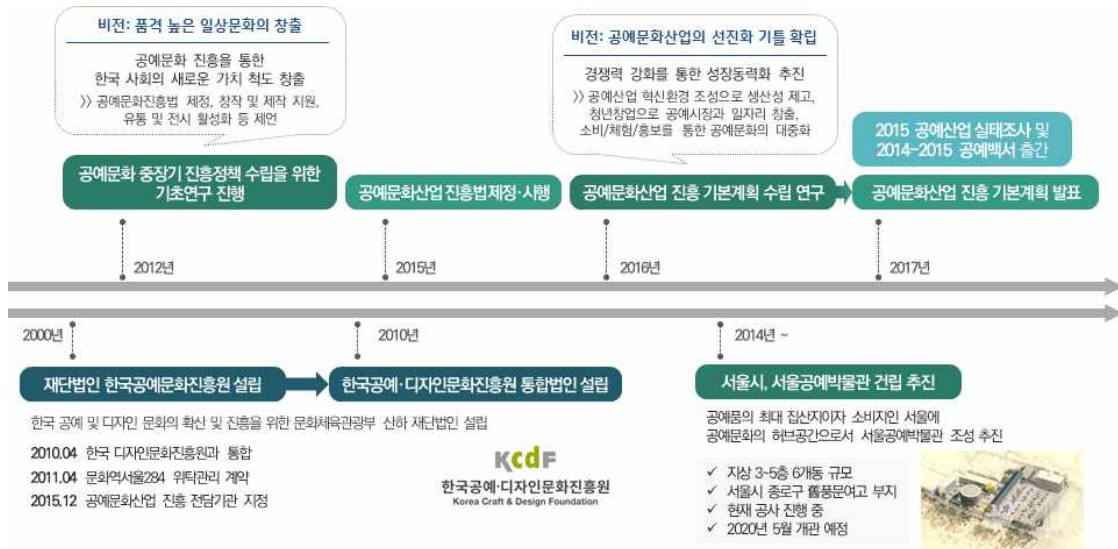
[그림 2-1] 분석 프레임



2.2 정책적 차원

- 공예문화산업을 둘러싼 법·정책 환경 검토를 통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및 지향성을 계승하고 있음

[그림 2-2]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정책 개요



- 현재 국가 단위의 공예 관련 정책/계획은 공예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공예의 문화예술 차원의 정책은 대부분 홍보 및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

- ‘생활 속의 공예’의 비전 하에 수요 기반의 공예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예문화산업의 정책방향 확인
- 2017년 12월, 공예산업 혁신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창업 지원으로 공예 시장과 일자리 창출, 공예문화의 대중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5대 추진전략과 14대의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 발표함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공예계·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워크숍을 통한 실행가능성 검토와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됨
- 가격 경쟁력 하락 및 지속적인 시장 규모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예문화산업의 현실을 극복하고 공예 가치사슬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 공예문화산업의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2-3]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 개요

비 전		생활 속의 공예
목 표	■ 수요기반의 공예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 창작 환경 혁신으로 생산성 제고 • 공예 소비 기반의 시장과 일자리 창출 • 공예 교육·홍보 확대로 공예 문화의 일상화 	
5대 추진전략 · 14대 핵심과제	I. 공예산업 공급기반 강화	① 공예산업 혁신기반 구축 ② 공예기술과 소재 경쟁력 강화 ③ 공예 생산역량 강화
	II. 공예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① 공예 전문인력 양성 ② 공예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III. 공예유통 활성화 및 시장 창출	① 공공부문 공예수요 창출 ② 공예 유통망 개선 ③ 공예 브랜드화 및 이력관리제 도입 ④ 공예품 해외진출 강화
	IV. 공예문화의 확산	① 공예문화 인식 개선 ② 국민 공예체험 기회 확산 ③ 공예문화 홍보 강화
	V. 공예문화산업 정책 추진체계 정비	① 공예문화산업 진흥 거버넌스 확립 ② 공예문화산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참고자료 : 공예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를 내포한 문화산업으로서 공예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 2015년 제정
-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용어 확립과 함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 및 지원 사항 등을 법제화함
-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교류 및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공예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또한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내제된 공예품으로서 경쟁력 있는 공예품을 발굴하고 우수 공예품으로 지정해 브랜드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시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새예술정책(2018~2022)〉^{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 중장기정책인 새예술정책 중 공예관련 정책은 유통 활성화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유통망 개선 및 공공부문 수요 창출과 그 외의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업 지원 등의 세부 과제가 제시됨

[그림 2-4] 공예 관련 새예술정책 세부사항

비전	사람이있는 문화, 예술이있는 삶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지원체계에서의 자율성, 독립성 강화 • 예술 창작 및 향유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 •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술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삶의 질 제고와 사회혁신에 기여
[4]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7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p>예술유통 활성화 위한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 유통망 개선 및 공공부문 수요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기념품 수요와 공예사업자를 연계하는 B2B/B2G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소량생산-소량수요 체계를 수요집적-수요대응형 생산체계로 전환('19년) - KCDF 갤러리 등 공예 상설전시판매장 개설 확충(3개소, '19년) - 공예품 이력관리제를 통해 공예가와 공방 이력 DB화('20년) - 공예품 품질보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22년) • 그 외 메이커스페이스(공동 창작/전시/판매공간) 조성, 청년 공예/공공디자이너 창업 지원 등 	

□ 산업과 예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예의 특성에 따라 공예의 개념과 범주는 매우 포괄적이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성격을 가짐

○ 전승공예와 현대공예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소재 및 유통 과정 등으로 분류하기도 함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예의 개념

- 공예 :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가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
- 공예품 :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현대공예 제품 포함함
- 공예문화 산업 : 공예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과 그 사회적 행태 및 그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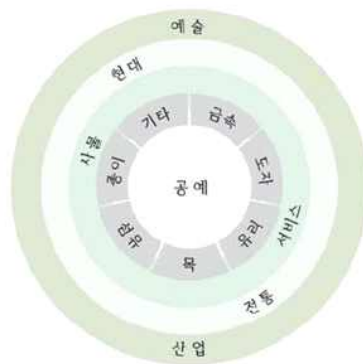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한 공예의 정의

- “실용적 가치와 미술적 가치를 가진 공작에 관한 기법 또는 조형예술”
- 사용된 재료에 따라 금속공예, 목칠공예, 토도공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법 및 문양도 주된 범주 중 하나로 사용됨

○ ‘2014-15 공예백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른 공예 분류기준 및 분류 체계

- 공예백서에서는 대한민국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단계와 현장 상황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고 정책적 이슈 개발 및 발전 방향 모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예 현상을 4개의 동심원으로 구성하여 읽어내고자 함
- 가장 외곽에 배치된 동심원은 공예를 ‘산업’ 및 ‘예술’의 관점으로 접근하며 두 번째 동심원은 근대 이전/동시대적 가치 각각에서 기인한 생산 동인에 따라 ‘현대’와 ‘전통’으로 나누고 있음. 세 번째 동심원은 공예 현상의 대상적 성격(오브제) 혹은 무형적 활동(비물질적 공예활동)의 구분에 따라 ‘사물’과 ‘서비스’로 구분함.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예 분류에 적용되어 온 재료의 관점에서 7개 항목으로 접근함

[그림 2-5] ‘2014-15 공예백서’의 공예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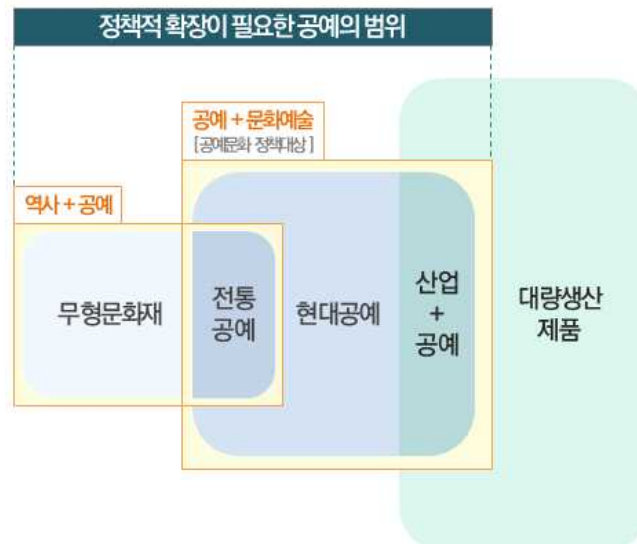


- 네 개의 동심원은 공예현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성
- 각 동심원은 위계질서 및 공예의 장르 구분에 따르지 않음
- 동심원들은 공예 현상 분석을 위해 회전, 교차, 조합될 수 있음

□ 정책적 관점의 확장 및 문화적 포용성을 위해 그동안 공예문화의 정책대상으로 다뤄졌던 범위 이상의 넓은 관점이 필요함

- 공예문화 정책대상으로서 설정, 적용되어왔던 범위는 전통공예부터 현대공예, 대량생산되지는 않으나 공예가가 기계의 힘을 빌려 생산하는 산업공예의 형태까지를 의미함
-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 시에는 이러한 공예문화 정책 대상의 범위를 포함하되 무형문화재 및 현대공예의 특성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범위와 관점의 확장이 필요함

[그림 2-6] ‘공예문화중장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기반한 공예의 범위



✓ 전시에 활용된 공예의 분류 사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NOW! 2015 한국현대공예전〉

-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파리장 식미술관이 공동주관한 ‘KOREA NOW! 2015 한국현대공예전’에서는 기존 한국공예의 이분법적인 사고개념을 넘어선 3가지의 공예 분류기준을 제시하며 전시를 기획, 구상함
- 동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혼성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현대공예의 상황과 지형을 살펴봄으로써 다이나믹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시대 한국공예의 다원적인 면모를 소개
- 전시 주제는 유정(有情, affection)으로 한국인의 정서 즉, 정이 있는 물건을 뜻함. 소 주제로 오마주, 공명, 하이브리드 등 동시대 한국공예의 특수성을 담은 3가지를 제시 하였으며, 인간 vs. 기계, 전통 vs. 현대, 공예 vs. 순수미술 등 시대를 넘나드는 창조적인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생산, 수용하는 다원화된 문화구조물로서 한국현대공예를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음

[그림 2-7] KOREA NOW! 2015 한국현대공예전에서 제시한 공예의 분류

오마주	공명	하이브리드
한국의 공예문화 원형을 재현, 계승, 발전시킨 작품	전통공예를 재해석해 형태, 소재, 기법 및 마감에서 현대적 변용을 꾀한 작품	새로운 재료와 기법, 제작방식 및 표현에 집중한 작품
		
오왕택, 나전칠기합 사계	서정화, Structure for Use	소은명, The Lines

2.3 공예의 현재와 박물관 현황

□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는 소수의 공예 분야 예술인과 다수의 사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산업과 예술을 포함하는 잠재 수요·대상자의 확장적 접근이 필요함

○ 공예 분야 종사 예술인 수 현황

- 예술인실태조사 중 공예분야에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공예분야 종사 예술인 수를 추산하면 2017년 기준 1,974명으로 확인됨
- 이는 전국 예술인 중 약 1%에 불과하며 그 중 서울 지역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2-1] 예술인실태조사(2015, 2018) 내 공예 분야 예술인 수 현황

지역	2014		2017	
	예술인 수(명)	전국 내 비중	예술인 수(명)	전국 내 비중
서울	562	35.5%	670	33.9%
합계	1,582	100%	1,974	100%
전국 예술인 중 비율	1.2%		1.1%	

○ 공예 사업체 종사자 현황

- 공예사업체 종사자 수는 2015년 기준 67,698명으로 집계되며 금속 및 섬유 분야가 각각 30% 안팎을 차지해 우세함
- 공예사업체의 평균 종사자는 1.8명이며 제조/생산보다 유통/판매가 매출액 및 종사자 수 등에서 약 두 배 더 큰 시장을 가진 것으로 추정

[표 2-2] 공예산업 실태조사(2016) 내 공예 사업체 종사자 현황

		총 매출액(백만원) / 비중(%)		종사자 수(명) / 비중(%)	
금속(귀금속, 보석 포함)		1,619,012	45.6%	23,039	34.0%
도자		408,427	11.5%	8,094	12.0%
유리		8,987	0.3%	142	0.2%
목		257,476	7.2%	5,204	7.7%
섬유		770,990	21.7%	5,204	7.7%
종이 (한지포함)		23,395	0.7%	662	1.0%
기타	죽세,초경,특수소재 등	44,715	1.3%	1,262	1.9%
	석	54,435	1.5%	1,430	2.1%
	가죽	105,885	3.0%	2,479	3.7%
	공통	260,124	7.3%	5,826	8.6%
합계		3,553,437	100%	67,698	100%

□ 공예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및 행사 현황 검토 결과 민간 부문 및 도자 부문의 전시가 두드러짐

○ 공예 관련 전시 및 행사 현황

- ‘2014~2015 공예백서’에 따르면 공예 관련 전시 및 행사는 연간 약 1,000여 건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 전시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주최 유형으로 보면 민간 주최가 80% 이상으로 나타남
- 국내 공예 관련 비엔날레, 박람회, 페어 등 주요 대형 행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충청북도, 청주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경기도), 공예트렌드페어(문화체육관광부), 서울디자인페스티벌(㈜디자인하우스) 등이 있음

[표 2-3] 유형별 공예 관련 전시/행사 현황

단위 : 건

	2014			2015		
	공공	민간	합계	공공	민간	합계
전시	127	931	1,058	98	794	892
행사	17	3	20	16	3	19
국제교류	55	18	73	41	48	89
합계	199	952	1,151	155	8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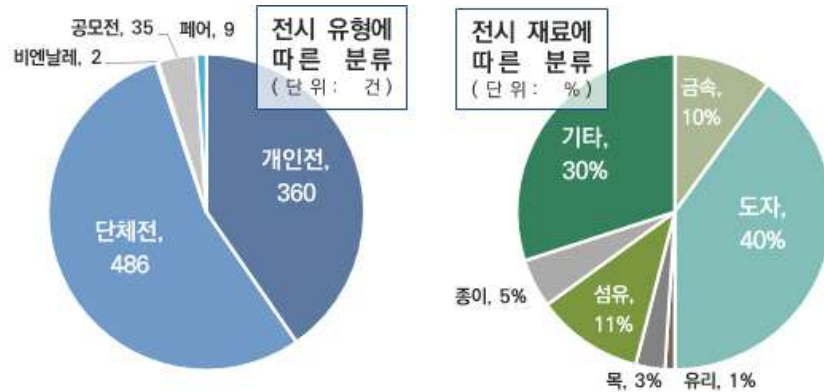
[표 2-4] 국내 공예 관련 공공/민간 비엔날레, 박람회, 페어 등 목록

	명칭	주최	주관
공공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GICB 국제위원회
	공예트렌드페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대한민국공예문화박람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청주국제공예페어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민간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주)디자인하우스	월간디자인
	부산국제차·공예박람회	부산MBC, 울산UBC	(주)메세코리아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사회적 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 서울디자인재단	-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주)핸드아티, 레몬트리	
	디자인아트페어	마이아트기획연구소	

○ 유형 및 재료에 따른 주최 전시 분류

- 전시 재료에 따른 분류의 경우 석, 칠, 가죽 등 규모가 작은 전시재료뿐 아니라 신소재 및 특수소재, 생활재료까지 공예가 확장됨에 따라 '기타' 응답의 강세가 두드러짐

[그림 2-8] 전시 유형 및 재료에 따른 전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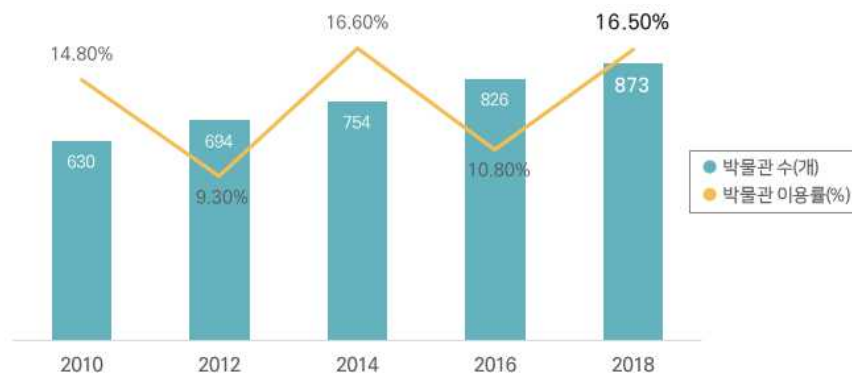


□ 국내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이용률은 등락이 크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 박물관의 절대적인 수적 증대보다 질적 활성화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목표 설정이 중요

- 박물관은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나 수도권의 지역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국내 박물관은 873개이며 2013년에 비해 130여개가 늘어 지난 5년간 약 18% 증가함
-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박물관(미술관 포함) 이용률은 16.5%로 조사 시마다 등락이 크며 증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대중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움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이용률을 높이고 1개관 당 인구수를 낮추기 위해 공공성, 전문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발표한 바 있음

[그림 2-9] 국내 박물관 개수 및 이용률 추세



출처 :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8),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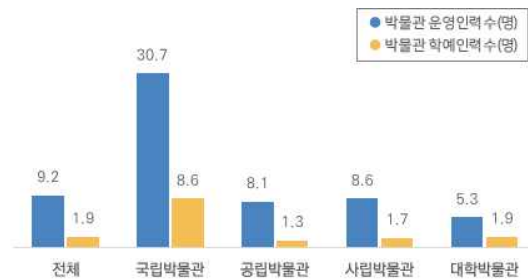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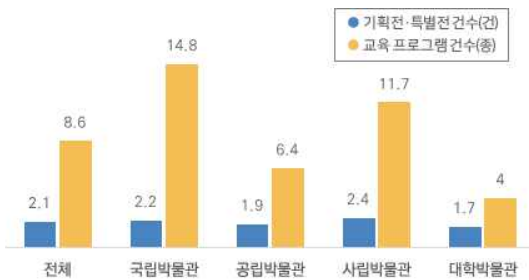
○ 국립박물관은 타 박물관 유형에 비해 대다수의 운영 현황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설 국립 박물관에 대한 필요 요건 및 기대치 역시 높을 것임

- 국립박물관은 공립/사립/대학박물관 유형과 비교했을 때 약 2~10배 가량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 교육 프로그램도 더 다양함
- 운영인력 및 학예인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박물관의 규모 및 비전을 고려했을 때 공간의 운영과 연구 등 기능 유지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 따라서 국립박물관의 신설 시에는 소장 유물과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 있어서 더 세심하고 높은 차원의 고려와 구성이 필요함

[그림 2-10] 박물관 유형에 따른 소장 유물 평균 개수



[그림 2-11] 연간 기획전/특별전 및 교육 프로그램 평균 [그림 2-12] 박물관 유형에 따른 운영/학예인력 평균



*출처 : 2017년 전국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8) 재구성

✓ 참고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9.7.2.)〉

-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대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제1종과 제2종 박물관/미술관은 자료의 '양'과 전시 시설의 '규모' 등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정의함
- 미술관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정의함

[그림 2-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중 제 1·2종 박물관 및 미술관 구분 기준

구분	제 1종 박물관·미술관		제 2종 박물관·미술관	
	종합박물관 (서로 다른 2개 분야 이상)	전문박물관 / 미술관 (특정 분야)	그 외	문화의 집
자료	(각 분야별) 100점 이상	100점 이상	60점 이상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학예사	(각 분야별)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 작업실 또는 준비실 		82m ² 이상의 전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3m² 이상의 문화공간 • 도난 방지시설
	1) 수장고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5) 온습도 조절장치 (제 2종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2)와 3) 중 1개만 충족)			-

그 외 : 자료관·서물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행복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미술관

2.4 공예 기관 및 공간 현황

- 공예는 국내외 다양한 박물관에서 전시품으로서 다루고 있으나 공예 전반을 거시적으로 다루는 공간은 국내에서 찾기 어려움
- 생활사 등을 다루는 박물관의 일부나 도자, 한지 등 소재에 따른 박물관으로 전시, 건립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공예 관련 박물관은 주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건립되었으나 건립 30년을 넘긴 곳도 10곳 가까이 되어 노후화가 예상됨

국립공예박물관 설립을 위한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연구

[표 2-5] 전국 공예 관련 박물관·미술관

*공간 명에 따른 가나다 순임

연번	박물관명	소재지	운영/설립주체	개관연도	공예 장르 및 주요 전시품
1	경기도자박물관	경기 광주시	공립 한국도자재단	2001	도자 도자기, 관요
2	고려청자박물관	전남 강진군	공립 강진군	1997	도자 청자
3	고성 탈박물관	경남 고성군	공립 고성군	2005	종이/목칠 탈
4	공예미술관 보임첸	전남 담양군	사립 개인	2015	공예 전반 공예미술 전반
5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충북 괴산군	사립 신흥한지	2012	종이 한지
6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국립 문화재청	1908	공예 전반 복식 및 생활사, 왕실 유물 등
7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1946	공예 전반 생활사 관련
8	김천 세계도자기박물관	경북 김천시	공립 김천시	2006	도자 도자기
9	녹청자박물관	인천 서구	공립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2	도자 녹청자, 도예
10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 동구	공립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2007	유기 방짜유기
11	대구섬유박물관 DTC	대구 동구	공립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2015	섬유 섬유, 패션
12	동림매듭공방(전시관)	서울 종로구	사립 개인	2004	매듭 전통매듭
13	동양자수박물관	강원 강릉시	사립 개인	2011	섬유 동양자수, 수보 자기, 소품 등
1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남 목포시	공립 목포시	2008	도자 생활도자, 산업도자
15	문경도자기박물관	경북 문경시	공립 문경시	2002	도자 민요 등 도자기
16	박물관자수박물관	서울 강북구	사립 개인	2009	섬유 전통자수, 현대자수
17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경기 파주시	사립 개인	2014	장신구 장신구, 옥석 공예품
18	본태박물관	제주 서귀포시	사립 개인	2012	공예 전반 전통공예, 현대미술 등
19	부안청자박물관	전북 부안군	공립 부안군	2011	도자 청자
20	석봉도자기미술관	강원 속초시	사립 개인	1997	도자 도자기
21	세계장신구박물관	서울 종로구	사립 개인	2004	장신구 세계 장신구
22	애보박물관	인천 남동구	사립 개인	2009	공예 전반 도자기, 금속, 자수, 목공예 등
23	양구 백자박물관	강원 양구군	공립 양구군	2006	도자 백자, 청화백자
24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경기 여주시	공립 한국도자재단	2002	도자 생활도자 등
25	영암도기박물관	전남 영암군	공립 영암군	1999	도자 구림도기, 현대/전통도예
26	용산공예관	서울 용산구	공립 용산구	2018	공예 전반 금속, 옷칠, 나전, 자수 등
27	울산옹기박물관	울산 울주군	공립 울주군	2009	도자 옹기
28	유리지 공예관	서울 서초구	사립 개인	2004	금속 금속공예, 현대금속공예
29	이천 세계도자센터	경기 이천시	공립 한국도자재단	2002	도자 현대도자 등
30	익산보석박물관	전북 익산시	공립 익산시	2002	보석 보석
31	자연염색박물관	대구 동구	사립 개인	2005	섬유 자연염색, 섬유
32	전주공예품전시관	전북 전주시	공립 한국전통문화전당	2018	공예 전반 도예, 자수, 금속공예 등
33	전주한지박물관	전북 전주시	사립 전주페이퍼	1997	종이 한지
34	제주 유리의 성	제주 제주시	사립 (주)제주유리의성	2008	유리 유리공예
35	제주옹기박물관	제주 서귀포시	사립 (사)제주전통옹기보존전승회	2010	도자 옹기
36	제주유리박물관	제주 서귀포시	사립 개인	2010	유리 유리공예
37	짚풀생활사박물관	서울 종로구	사립 개인	1993	짚풀 짚풀공예, 생활공예
38	초전섬유·퀼트박물관	서울 중구	사립 제일문화원	1998	섬유 섬유예술, 퀼트, 조각보
39	통영 옷칠 박물관	경남 통영시	사립 개인	2006	옷칠 나전칠기, 칠예, 옷칠 등
40	풀집공예박물관	경기 광주시	사립 개인	2008	짚풀 짚풀공예
41	하회동세계탈박물관	경북 안동시	사립 개인	1995	종이/목칠 탈, 세계탈
42	한국가구박물관	서울 성북구	사립 개인	1996	목칠 가구, 고가구
43	한국공예관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	2001	공예 전반 금속, 목칠, 도자, 한지 등
44	한국나전칠기박물관	서울 용산구	사립 (재)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2014	목칠 나전칠기
45	한국다완박물관	경북 문경시	사립 개인	2018	도자 찻사발, 도예
46	한국색동박물관	서울 종로구	사립 개인	2014	섬유 색동, 의복
47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전남 나주시	공립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2006	섬유 천연염색
48	한향림옹기박물관·현대도자미술관	경기 파주시	사립 개인	2004	도예 옹기, 도자기, 도예

□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공간의 방문객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연간 방문객 수는 약 14만 명으로 국립 이외의 박물관은 약 7만 명 수준이며 연간 방문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9개소 뿐으로 운영 및 인지도 확대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음

○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공간 방문객 현황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및 통계청 등을 통해 방문객 수를 집계, 공개하는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 공간은 약 40개로 확인되며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평균 연간/일간 방문객 수를 도출한 결과 연간 14만여 명, 일간 387명으로 나타남
- 국립 단위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을 제외한 공립·사립 박물관/전시관의 경우 방문객 수가 현저히 적은 연간 약 7만, 일간 약 200명으로 공예를 다루는 박물관/전시관의 경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렵거나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 가능
- 연간 방문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공예 관련 박물관의 경우 대다수 공립으로 나타났으며 도자 분야의 박물관이 매우 두드러짐

[표 2-6]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전시관 공간 방문객 현황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전시관			
		국립 단위	공립 단위	사립 단위
집계 공간/시설 수(개)	40	2	15	23
방문객 수 합계(명)	5,645,525	3,001,695	1,551,594	1,092,236
공간당 평균 연간 방문객 수(명)	141,138	1,500,848	103,440	47,489
공간당 평균 일간 방문객 수(명)	387	4,112	283	130

[표 2-7] 연간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의 공예 관련 박물관

	명칭	위치
국립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공립	경기도자박물관	경기 광주시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 동구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남 목포시
	문경도자기박물관	경북 문경시
	부안청자박물관	전북 부안군
	익산보석박물관	전북 익산시
	익산보석박물관	전북 익산시
사립	제주 유리의 성	제주 제주시

현재 국내 공예문화를 담당하는 정책 전담기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공예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

- 공예트렌드페어, 공예주간 등 행사 및 공간 조성, 인력 양성, 상품 개발 지원 등 공예 디자인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가능

[그림 2-1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주요 사업 및 미션과 비전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미션	공예·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비전	공예·디자인 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선도하는 기관

전략목표	공예 관련 전략 과제
문화 향유 활성화	공예문화 향유 확산
산업 경쟁력 제고	공예 유통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교류협력 증진	공예 교류협력 강화

공예본부

- 공예문화팀
- 공예디자인융합팀
- 공예산업팀
- 갤러리운영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예 관련 사업

KCDF 기획전시
공예·디자인 인력양성
공예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공예·디자인 상품개발
지역공예 기반조성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공예트렌드페어
공예 분야 해외 교류
공예주간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공예 매개인력 양성

□ 서울공예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공예전문 종합 박물관으로서 2020년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개발 및 디지털 문화유산 데이터 구축·전시로 차별점을 모색함

○ 서울공예박물관 추진 상황

- 공예품의 최대 집산지이자 소비지인 서울에 건립되는 공예 전문 종합박물관으로서 한국 공예전통문화를 선도·발굴·전파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됨
- 입주형 공예창작 지원시설과 작가와 시민이 만나는 체험형 공예공방 등 시민 편의공간을 갖춘 공예문화 종합공간으로 전시장, 수장고, 교육실 및 자수·직물 분야 수집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존 과학실 등으로 구성함

○ 박물관 개관 준비 및 차별성

- 수집품은 2019년 10월 기준 8,430점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수집을 통해 아시아 공예를 필두로 한 국제적인 컬렉션을 구축할 계획
- 연내 약 50억 원을 투입해 근대 전문 컬렉터 소장 작품(비원도 도자 등 약 1만2000점)과 로에베 공예상 선정 작품 구입 추진
- 디지털 문화유산 데이터 구축을 통해 옛 안동별궁의 모습과 안동별궁/한성백제박물관 수장고 등의 소장자료를 3D 스캔 데이터로 가공, 초고화질 디지털 이미지를 구축해 전시하고자 함

- 또한 언제, 어느 전시에서든지 시각장애인들의 공예 감상 및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목표로 모든 관람객이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공예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준비 중임

[표 2-8] 서울공예박물관 개요

위치	서울 안국동 175-33 필지 등 풍문여고 잔여 부지	
규모	연면적 1만590㎡, 지상 1~5층	
개관 일정	2020년 하반기 개관 예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예품 수집 ▲ 연구 기반 콘텐츠 개발 ▲ 공예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시대 정보공유 플랫폼 조성 ▲ 역사와 공예를 품은 명소 공간 조성
공간 구성	건물 6개동 (직물공예관·공예역사관·현대공예관·교육관·아트리움·한옥·관리동)	
수집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기준 8,430점 (한국자수박물관의 허동화, 박영숙 부부가 서울시에 무상 기증한 소장유물 4,241건(5,129점) 포함) • 2025년까지 약 3만점의 작품 수집 계획 	



□ 국립적 차원의 공예 박물관 설립을 위해서는 비전 및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 국내외 국립박물관은 대부분 해당 국가의 예술적 우수성 및 대표적 컬렉션의 보존 및 전시를 목표로 함

[그림 2-15] 국내외 국립박물관의 비전 및 미션

박물관명	비전/미션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힘이 생동하는 박물관, 우리나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박물관
파리 국립 예술공예박물관	동시대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유산의 보호와 진흥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미국적인 경험과 세계적인 연결을 반영하는 창의적인 작품의 전시와 기념
아일랜드 국립박물관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연결 짓기



2.5 환경분석 시사점

- 국내 공예 관련 정책은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예의 문화예술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유통, 공급기반 강화 등 공예의 산업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정책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통과 현대, 신소재/기술 등 점차 넓어지는 공예의 다층적 스펙트럼을 포용하고 공예의 문화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확장적 접근이 필요함

- 최근 전시에서는 공예 범위의 확장성이 눈에 띄나 공예 관련 국내 박물관은 특정 장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박물관이 적음
 - 현재 국내 전시 및 박물관의 주제성 분류에 있어서는 도자공예가 매우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시 재료 분류에서 '기타'가 증가하고 새로운 분류법을 활용하는 전시가 늘고있는 등 공예의 확장성이 다수 눈에 띄는
 - 주로 특정한 공예 분야에 집중한 전문박물관이 많으며 공예 전반을 거시적으로 보는 전문 종합박물관은 개관을 앞둔 서울공예박물관 정도가 있으며 많지 않음

- 국내 박물관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률이 늘지 않는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른 박물관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 전반적인 국내 박물관의 이용률은 답보 상태이며 특히 공예 분야를 다루는 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적어 운영 및 인지도 증대의 어려움이 예측 가능함
 -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 이전에 증가하는 박물관 사이에서 서울공예박물관을 포함해 공예를 다루는 타 박물관과의 차별점을 모색하고 운영적 측면에서의 관람객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 국립 단위 박물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와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비전의 설정과 질적 고려가 긴요함
 - 국립 단위의 박물관은 소장 유물, 운영 프로그램, 학예/운영 인력 등 양적 기준치 및 관람객의 질적 기대치가 높음에 따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국립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박물관의 비전/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3. 사례 검토

3.1 조사 관점

3.2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3.3 해외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3.4 종합 시사점

3 사례 검토

3.1 조사 관점

□ 공예를 다루는 국내외 다양한 박물관 및 공간의 사례를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조사 검토함

○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분석 관점을 토대로 사례를 파악하되 각 공간의 구성과 콘텐츠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국내의 경우 전문성·부합성과 공간 활성도를, 국외의 경우 공예의 범주 및 설립 배경·목적에 주되게 살펴봄

- 전문성·부합성 : 아카이빙 등 학술적 측면 및 공간의 목적 부합성
- 공간 활성도 :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방문객 양상
- 공간과 콘텐츠 : 공간 구성 및 규모와 콘텐츠 프로그램
- 공예의 범주 : 다루고 있는 공예의 범주와 그 확장성
- 설립 배경·목적 : 공간 설립의 목적 및 배경

[표 3-1] 국내외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조사 사례

분류	연번	공간 명	분류	연번	공간 명
국내 공예 관련 공간	1	국립중앙박물관	해외 국립 공예 박물관	22	파리 국립 예술평예박물관
	2	국립청주박물관		23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렌워 미술관
	3	국립민속박물관		24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4	국립고궁박물관		25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장식박물관
	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갤러리		26	아일랜드 국립박물관 장식미술&역사관
	6	청주 한국공예관		27	대만 가오슝 국립과학공예박물관
	7	용산 공예관		28	인도 국립공예박물관
	8	경기도자박물관	해외 공예 관련 박물관/ 전시관	29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9	이천 세계도자센터		30	프랑스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
	10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31	독일 베를린 장식예술·공예박물관
	11	대구 섬유박물관		32	독일 마이센 도자기 박물관
	12	공예미술관 보임첸			
	13	본태박물관			
	14	울산 용기박물관			
	15	문경 도자기박물관			
	16	전주 한지박물관			
	17	풀집공예박물관			
	18	한국천연 염색박물관			
	19	목포생활도자박물관			
	20	통영 옷칠 미술관			
	21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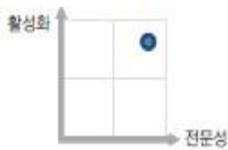
3.2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3.2.1 공예를 다루는 국내 주요 국립 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1항을 근거로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성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음
- 국립박물관 비전 2020은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힘이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연구진들이 평가한 공간 활성화와 전문성·부합성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공예 관련 전시공간 및 소장품 현황
 - 유물의 대다수가 공예의 범주 안에 들어오며 따라 다양한 공예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금속, 도자기, 석, 유리보석, 나무, 골각패갑 등 다양한 장르의 공예물품을 소장하고 있음
 - 6개의 관, 50개의 실 중 조각·공예관, 목칠공예실 등 공예 소장품을 전시하는 별도의 전시관 및 전시실을 조성, 운영 중임
- 공예 전시
 - 서화관 內 목칠공예실에는 공예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재현하고 조선시대 사대부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으며, 조각·공예관은 도자공예실(백자실, 분청사기실, 청자실), 금속공예실, 불교조각실 등으로 나누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공예 명품 약 700점을 전시하고 있음
- 운영방향
 - 집단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와 연계한 활동이 주로 운영되고 있음

[표 3-2] 국립중앙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945	
운영주체	국가 / 문화체육관광부	
위치	서울 용산구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3,476,606명 일 평균 관람인원 : 9,604명	
소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소장품 : 195,272건- 국보/보물 : 322건- 공예 관련 소장품 : 122,655건(금속, 도자기, 유리/보석, 섬유, 뼈/물/조개, 나무, 돌)	
전시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별, 분야별 등 전시관을 분류- 중/근세관, 선사/고대관, 서화관, 조각/공예관, 아시아관, 기증관	



[표 3-3] 국립중앙박물관 공예 관련 담당 부서 및 업무

담당 부서	공예 관련 업무
학예연구실 미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 조사, 발굴, 수집, 전시, 고증, 평가, 분석, 제도, 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 서화관과 조각공예관 운영 및 관리
학예연구실 보존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도자기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 식물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 목재유물 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 금속유물 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학예연구실 유물관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 소장품 구입, 대여 및 기증,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 소장품 복제 및 열람, 촬영 등의 허가 -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관리와 자료실 운영 - 소속박물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교류단 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 아동박물관 기획운영 - 도서실 운영, 관리 -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운영
교육문화교류단 어린이박물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어린이, 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린이 특별행사

[표 3-4]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역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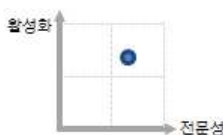
박물관 명	개관연도
국립경주박물관	1945
국립부여박물관	1975
국립공주박물관	1975
국립광주박물관	1978
국립진주박물관	1984
국립청주박물관	1987
국립전주박물관	1990
국립대구박물관	1994
국립김해박물관	1998
국립제주박물관	2001
국립춘천박물관	2002
국립나주박물관	2013
국립익산박물관	2015



□ 국립청주박물관

- 국립청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충북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연구·전시하고 다양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원문화의 특색을 조명하고자 설치됨
- 공간 활성화도는 높은 편이나 중원문화의 특색을 조명한다는 초기의 목표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여 전문성, 부합성 부문의 점수는 낮다고 평가됨
- 설립목적
 - 1987년 개관하여 충북지역의 문화유산 거점이자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자 설립하였고, 현재 17,000여 점의 금속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금속공예 박물관으로 특화하여 브랜드화 추진 중인 상태
- 공예 전시
 - 충청 지역의 생활 유적 및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당시 시대의 생활상과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설전시가 진행되고 있음
 - 전시실을 선사문화실, 고대문화실, 고려문화실, 조선문화실 등 시대별로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시대의 생활상과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 운영 중
- 운영방향
 - 성인, 어린이, 노년 등 다양한 계층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학 강좌, 현장답사 및 체험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임
 - 매년 ‘봄 문화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박물관의 유물보존, 전시기능을 넘어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표 3-5] 국립청주박물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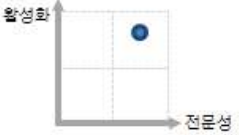
개관연도	1987	
운영주체	국가 / 문화체육관광부	
위치	충북 청주시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488,251명 일 평균 관람인원 : 1,570명	
소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소장품 : 37,629건(62,621점)- 국보 1점, 보물 7점, 시도지정문화재 1건 1점- 금속, 토기, 도자기, 석재, 유리보석, 서화탁본 등	
전시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별로 전시관을 분류- 선사문화실, 고대문화실, 고려문화실, 조선문화실 등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박물관으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의 산 터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국민과 세계로 다가가는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비전과 고객과 소통하는, 지역과 함께 하는,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가 되고자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공간 활성화와 전문성, 부합성 측면 모두 높은 점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함
- 설립목적
 -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소장품 대부분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물인 민속생활용품이며 유물자체의 가치보다 유물 안에 담긴 선조들의 생활상 및 정신을 강조함
- 공예전시
 - 3개의 상설전시실과 연 4회 이상의 기획,특별전을 통해 한민족 생활문화의 폭넓은 이해에 이바지하고 있음
 - 한국인의 하루,일상,생활을 기준으로 전시실을 나누어 생활방식의 변천사를 전시함
- 운영방향
 -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일상생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 박물관도 함께 운영해 주로 체험 위주의 전시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전문가 양성교육에서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

[표 3-6] 국립민속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946	
운영주체	국가 / 문화체육관광부	
위치	서울 종로구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1,813,626명 일 평균 관람인원 : 5,744명	
소장품	● 주요 소장품 : 82,519 건(137,323 점) 쓰임새(용도)를 기준으로 분류(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상업) 국가지정문화재 8건 소유	
전시실 구성	한국인의 하루	17세기-20세기 조선 후기 이후 한국인의 일상
	한국인의 일상	농경생활, 사계절에 빛난 조선시대의 생활상
	한국인의 일생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의 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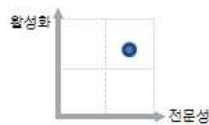


□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은 경복궁 내에 위치한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왕실 유물 전문 박물관으로 왕실.귀족 계층의 삶과 생활을 담고 있는 박물관이며 전문성. 부합성 정도는 높으나 그에 비해 공간 활성화는 높지 않음
- 설립목적
 - 1908년 개관한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을 모태로 문화재청이 왕실문화를 홍보하고 연구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음
 -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과 관련된 유물을 보존, 전시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곳
- 공예전시
 - 전시실은 조선의 국왕.궁월, 왕실의 생활, 대한제국 등 나뉘어져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과 관련된 유물을 보존.전시 중임
 - 대한제국~일제강점기 왕실 의복이나 조선 시대 옥새 등 왕실 관련 유물을 다구 볼 수 있음
- 운영방향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간 교육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온.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고궁 배움터를 통해 궁중 음식, 음악 체험부터 왕실 의료, 복식, 과학에 대한 이해까지 왕실 문화 전반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표 3-7] 국립고궁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908 제실박물관 개관	
운영주체	국가 / 문화재청	
위치	서울 종로구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1,513,308명 일 평균 관람인원 : 4,744명 (2017년도)	
소장품	• 주요 소장품 : 49,844점 - 조선, 대한제국 시대의 왕실 복식 및 생활 관련 유물 - 소장유물 국보 2건(75점),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등 보유	
전시실 구성	조선의 국왕	조선의 궁궐
	왕실의 생활	대한제국
	궁중서화	왕실의례
	과학문화	여차



3.2.2 국내 공예 관련 공간

□ [공립]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갤러리

○ 설립목적

- 국내 공예 전담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공예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예 인과의 소통과 일상에서의 공예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함

○ 공간구성

- 공예디자인 문화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시와 교육, 세미나 공간과 한국의 대표하는 장인, 작가들이 만들어낸 우수 공예 상품이 구입 가능한 갤러리숍, 그리고 다양한 공예디자인 관련 서적과 자료를 갖춘 연구 공간인 KCDF 도서관으로 구성됨

○ 운영 현황

- 갤러리 대관 : 공예디자인 예술 전분야를 대상으로 일반대관과 진흥원 자체의 기획전시 및 작가공모를 통한 선발로 진행되는 기획대관으로 운영 중임
- KCDF 공예유통숍 : 공예디자인 문화와 산업육성 및 유통망 활성화 목적으로 입점 공모 중이며, KCDF 갤러리숍, KCDF 온라인숍 '공예감성', 청와대사랑채 등 운영 중임
- KCDF 공예디자인 상품개발 후속지원 : KCDF 온라인숍 '공예감성'을 통해 후속 지원 사업 상품을 판매함

[그림 3-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갤러리 운영 공간



KCDF 갤러리숍



청와대사랑채 기념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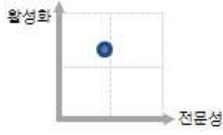


KCDF 온라인숍

□ [공립] 청주시 한국공예관

- 국내 유일의 공예전문 공립미술관으로서 공예의 예술적 본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플랫폼 구축과 국내외 전시를 통한 문화교류와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만 주로 대관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전시, 판매 등에 주력하고 있어 전시 부문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간 활성화 정도는 높으나 전문성, 부합성 정도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설립목적
 - 국제적인 명성을 확보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정신과 문화산업에 가장 큰 경쟁력을 발휘하는 21세기 전략적 문화중심지 역할과 아울러 문화도시 청주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되고 있는 공예예술과 공예상품을 접목시켜 새로운 공예문화 창조하기 위한
- 공예전시
 - 기획전, 초대전, 대관전 등 형태로 전시를 기획하며, 주로 대관전시가 많으며 기획전은 연1-2회 진행함
- 운영방향
 - 공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위상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며, 뮤지엄숍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 사업'에 따라 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 5개 시.군 공예문화의 저변 확대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쇼핑몰로 구축할 예정임
 - 뮤지엄 샵에서 직지 문화상품 및 청주공예문화상품 대전 수상작, 지역 공예의 작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표 3-8] 청주시 한국공예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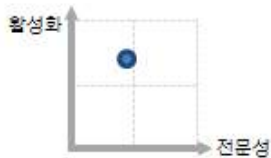
개관연도	2001	
운영주체	공공 / 청주시	
위치	충북 청주시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32,000명 일 평균 관람인원 : 106명	
소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공예 119점, 전통공예 2점- 현대공예 : 도자, 금속, 목칠, 유리, 섬유, 한지, 모필, 가죽, 염직, 기타- 전통공예 : 도자, 금속	



□ [공립] 용산 공예관

- 공예문화 플랫폼으로서 전통공예문화의 계승과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태원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등 부족한 홍보 및 활동으로 플랫폼 활성화가 더딘 상태
- 창작,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운영 방안으로 공간 활성화는 높으나, 공간의 전문성과 부합성 측면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설립목적
 -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공예문화산업 진흥,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하였음
- 공예전시
 - 기획전뿐만 아니라 공예관 입주 작가의 작품전도 개최하며, 대부분 한달 이내의 짧은 기간의 전시를 기획함
- 운영방향
 -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몰리는 이태원 특성을 활용하여 자수, 한지, 칠보, 민화 등 전통공예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 13명의 공예작가가 상주하며 교육과 작품 활동을 병행 중이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공예작가를 위해 입점 계약을 통해 전시 판매 또한 진행 중임
 - 전국의 명장이 제작한 우수 공예품뿐만 아니라 공예관에 입주한 공예가의 작품까지 만날 수 있음

[표 3-9] 용산공예관 개요

개관연도	2018	
운영주체	공공 / 용산구	
위치	서울 용산구	
운영방향	창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공방, 공예배움터 - 한지.종이, 규방.자수, 금속.칠보 등 어르신 공예가 24명 발굴
	문화관광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도자기 체험장 -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태원에서 공예체험, 전통의상체험 등 많은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명소의 기능을 수행
	고용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 40여 명이 넘는 공공 어르신 일자리 창출



□ [공립] 경기도자박물관

- 한국도자재단은 전통공예, 현대공예, 생활공예를 각자 다른 공간에서 주력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기도자박물관은 전통도자를 다루는 박물관이자 청년 작가의 창작, 창업지원까지 담당하는 공간
- 전통 도자공예에 전반에 대한 진흥에 힘쓰고 있으며 공간 활성화와 공간의 목적 부합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설립목적 및 비전
 - 삶의 품격을 높이는 한국도자공예 선도기관으로서 조선시대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했던 관요의 고장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는 물론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기 청자 및 백자에서부터 근.현대 도자에 이르기까지 유무형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
- 운영방향
 - 곤지암 도자공원은 경기도자박물관과 더불어 체험, 레지던시, 먹거리 등 도자공예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테마 공간을 지향함
 - 매 홀수 년마다 진행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이천 세라피아, 여주 도자세상과 함께 진행하고 있음
- 특이사항
 - 교육 및 인재 육성에 주력하며 전통공예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전통공예원을 장.단기 입주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함
 - 작품 활동 지원 외에도 상품 개발, 상품 위탁 판매, 디자인 저작권 관련 컨설팅 등 도자 산업의 창업자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연구 활동 및 창작자 지원도 진행 중임

[표 3-10] 경기도자박물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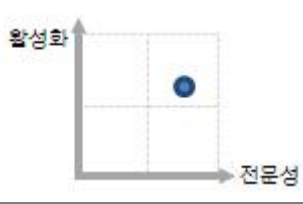


개관연도	2001	
운영주체	공공 / 경기도(한국도자재단)	
위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 內)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130,384명 일 관람인원 : 417명	
소장품	도자기 3,922건	
전시실 구성	도자문화실	도자개념, 역사, 기법 등 지식과 정보 제공
	상설전시실	한반도 자기문화의 발전과정, 한국도자 의 미래발전방향
	기획전시실	연중 2회 이상



□ 이천 세계도자센터

- 이천 세계도자센터는 보고, 만지고, 상상하는 도자테마파크인 이천 세라피아 내 위치하고 있는 예술/현대도자 전문 미술관으로 현대도자 작품 위주의 전시를 기획, 진행함
- 세계적인 현대도자의 예술적·문화적 현상들을 수용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대도자라는 공간의 목적 부합성, 전문성은 높으나 공간 활성화 측면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도자·유리 공예 전문 강좌와 체험 위주의 대상별, 목적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진작가 육성 및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한 창조공방 레지던시를 오픈 스튜디오로 운영 중임

[표 3-11] 이천 세계도자센터 개요

개관연도	2002		 	
운영주체	공공 / 경기도(한국도자재단)			
위치	경기도 이천시 (이천 세라피아 內)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32,693명 일 관람인원 : 105명			
소장품	현대도자 작품 2,335건(16,129점)			

□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 여주 세계생활도자관은 생활/산업도자 전문 전시관으로 도예 체험과 공연·전시 관람, 판매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여주도자세상 내 위치하고 있으며, 4개 전시홀의 전시를 통해 생활도자의 예술적 가치와 확장성, 다양한 공간 연출과 활용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 주로 판매 위주로 공간이 운영되어 공간 활성화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생활/산업도자에 특화된 전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공간 목적의 부합성,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됨
- 아트숍, 리빙숍, 브랜드숍, 갤러리숍 등 4개 매장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규모의 도자 쇼핑몰에서 관람을 넘어 판매까지 어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운영 계획이며 도예용 설비와 여러 분야의 공예장비를 구비하여 작가들이 다양한 소재와 융합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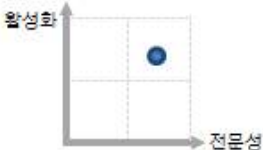
[표 3-12] 이천 세계도자센터 개요

개관연도	2002		 
운영주체	공공 / 경기도(한국도자재단)		
위치	경기도 여주시 (여주 도자세상 내)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73,553명 일 관람인원 : 229명		

□ [공립] 대구 섬유박물관

- 대구의 섬유산업 기반을 토대로 섬유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기업이 참여한 전시실을 운영하는 등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역사성과 전문성 모두 지녔지만, 섬유 관련 기획전시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전시를 통한 생동감, 변화가 적어서 공간의 전문성, 부합성은 높은 편이나 공간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됨
- 설립목적
 -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섬유박물관으로 한국 섬유와 패션 산업의 역사를 조망하고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 설립
- 전시운영
 - 의류뿐만 아니라 기계까지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 패션관, 산업관, 섬유기업실을 통해 우리나라 섬유 산업 전반의 역사를 보여주고, 미래관, 유관기관실을 통해 섬유의 미래까지 담아내고 있음
- 운영방향
 - 아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 영화, 강좌 프로그램을 가장 활발히 운영 중이며,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여 전 연령대 관람객들이 섬유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

[표 3-13] 대구 섬유박물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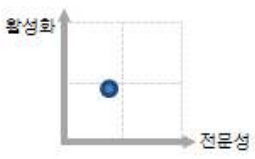
개관연도	2015				
운영주체	공공 /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운영				
위치	대구 동구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54,217명 일 관람인원 : 175명				
소장품	복식, 민속, 산업 등 유물 937건(1291점)				
전시실 구성	패션관	미래관	어린이 체험실		
	산업관	섬유기업실	유관기관실		



□ [사립] 공예미술관 보임센

- 공예 전문 미술관으로서 공예인들을 위해 전시장 무료 대관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민 대상의 적극적인 문화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이 돋보임
- 그러나 상설전시가 없고 기획전시 역시 활발하지 않아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공예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간 활성화와 공간의 전문성, 부합성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민을 비롯한 공예작가, 관람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교류하며 성장하는 비전을 갖고 있음
- 전시운영
 - 주로 기획, 초대전 및 레지던스 입주작가 개인전이 개최되며, 공예인들을 위한 전시장을 위한 무료 대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음
- 운영방향
 - 목공예, 도자공예, 염색공예 등 다양한 공예의 영역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전시, 창작, 숙식 공간을 제공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craft studio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들의 협업작품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온라인숍에 입점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표 3-14] 공예미술관 보임센 개요


개관연도	2015	
운영주체	사립	
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10,000명 일 관람인원 : 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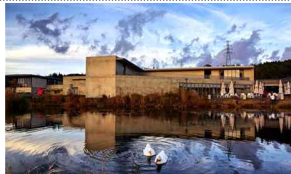


□ [사립] 본태박물관

- 한국 전통공예품 전시관과 국내외 유명 현대미술 전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어 공간 활성화와 전문성 부문이 부족한 박물관임
- 하지만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로서 박물관 건물 자체만으로도 관람객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가짐
- 운영방향

- 쿠사마 야요이, 백남준, 살바도르 달리 등 세계적인 현대미술작품이 상설 전시 중임
- 매년 문화전반의 주제로 다수의 강연을 진행하는 본태 아카데미를 운영 중임

[표 3-15] 본태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2012	
위치	제주 서귀포시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99,376명 일 관람인원 : 272명	
소장품	• 2023건 (2486점) 민속공예품, 현대미술품 - 소반, 자수, 보자기, 병풍, 도자, 장신구, 가재도구, 가마, 전통복식 등	
전시실 구성	소장품전-한국전통공예	현대미술작품과 안도 타다오
	쿠사마 야요이 상설전	상여와 꼭두의 미학
	제임스 터렐관(2020.12 개관예정)	



□ [공립] 울산 용기박물관

- 세계 유일한 용기 생산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전국 50% 이상의 용기를 생산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민속 용기마을 내 위치하고 있으며 용기의 역사와 문화를 주로 보존, 전시하는 역할을 함
- 다양한 기획 전시는 부재한 상태이지만 용기마을 내 아카데미 및 용기업체 등 생산, 창작,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통해 박물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주고 있어서 공간 활성화와 전문성 측면 모두 무난한 수준을 보임

[표 3-16] 울산 용기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2009	
운영주체	공공/ 울산시(외고산 용기마을 內)	
위치	울산 울주군	
방문객현황	연 관람인원 : 52,402명 / 일 관람인원 : 167명	
소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기류 949건(1462점, 기네스 등재한 세계최대규모 용기 포함) 	
운영방향	전시	연 5회의 기획전시 및 7개 구역 상설전시
	연구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아카데미 - 용기 제작과정 체험, 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기술 교육/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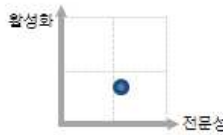
□ [공립] 문경 도자기박물관

- 문경지역은 서민들의 생활용기를 주로 생산하는 '민요'의 요람으로서 문경 도자기박물관

에서는 화려한 도자기가 아닌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도자기를 주로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문경에서 열리는 문경전통차사발축제와 연계해 공모전 전시를 진행하는 등 차사발의 고장임을 알리기 위한 기획이 돋보임

- 전통가마를 이용해서 직접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전통도자기 체험장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전시 및 활동이 전반적으로 다양하지 않아 공간의 전문성, 부합성은 높지만 공간 활성화 부문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7] 문경 도자기박물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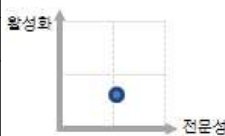
운영주체	공공/문경시		
위치	경북 문경시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115,636명 일 관람인원 : 317명		
소장품	● 도자기 543점(11세기~19세기 청자, 분청 백자 등)		
운영방향	전시	- 3개 전시실 및 전통공예관 - 외국인 작가 전시회, 공모전 수상작 전시, 지역 도예인 작품 전시 등 다각적 진행	
	연구	● 전통도자기 체험장 - 일 4회 진행되는 도예 일일체험	



□ [사립] 전주 한지박물관

- 전주 페이퍼가 운영하여 전주 페이퍼공장 내 건물의 1, 2층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며, 한지의 역사, 미래, 생활 순서로 전시를 관람한 후 한지를 직접 제작해보는 한지재현실을 마지막으로 관람 및 체험을 마무리함
- 한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측면에서 공간의 전문성, 부합성 측면은 보통 수준이나 규모가 작고 변화하지 않은 전시내용 및 프로그램으로 인해 공간 활성화 측면은 아쉬운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18] 전주 한지박물관 개요

운영주체	사립/전주페이퍼		
위치	전북 전주시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46,497명 일 관람인원 : 155명		
소장품	• 소장품 268건(552점) - 종류 : 지류, 고문서, 종이공예품 등		
비전	한지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공간		
운영방향	전시	상설 4개관, 연7회 기획전시	
	교육	한지만들기 체험 등	



□ [사립] 풀쥔공예박물관

- 상설, 특별.기획전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체험활동 결과발표전시를 통해 친근한 풀짚 공예의 가치를 알리고 있으며 어르신문화예술교육, 경기꿈의학교, 길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및 강의를 활발히 운영 중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성화와 전문성, 부합성 모두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9] 풀짚공예박물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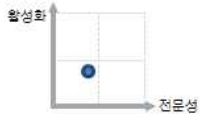
위치	경기 광주시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4,343명	일 관람인원 : 14명	
소장품	• 소장품 1,237건(1,995점) - 종류 : 풀짚공예품		
설립목적	풀짚공예의 공예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함		
운영방향	전시	연 3회 기획전시 등	
	교육	• 체험프로그램 - 생활체험, 일일체험, 전문인 심화과정 등	



□ [사립] 통영 옷칠 미술관

- 옷칠 1세대 작가가 전통 계승과 후배 양성을 위해 건립하였고, 현재는 소수정예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음
- 추상미술에서부터 생활도구까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나 초기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던 아카데미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을 줄여들어 공간 활성화와 전문성 및 부합성 부문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0] 통영 옷칠 미술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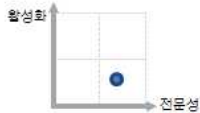
위치	경남 통영시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14,000명		
비전	세계 속의 한국인의 독특한 미를 재발견하고 차별화된 현대생활의 풍요와 즐거움을 찾아가는 교육의 장소		
운영방향	전시	나전칠기를 비롯하여 현대화시킨 칠에 작품 전시	
	레지던스	소수작가들을 선발하여 5개월간 숙소, 공동작업실, 전시공간 및 창작활동비 지원	



□ [대학]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대학 내에 위치해 방문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외국 대사관 및 작가들과의 협업 전시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현대 공예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한국의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만남을 꾸준히 시도하는 박물관
- 초기에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은 활발히 운영되지 않아 공간 활성화 부문은 낮았지만, 해외 교류 등 적극적인 전시 기획으로 인해 전문성 및 부합성 부문은 높은 모습을 보임

[표 3-21]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개요

위치	서울 용산구	
방문객 현황	연 관람인원 : 8,000명 일 관람인원 : 30명	
설립목적	한국의 여성 생활사와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종합박물관	
소장품	고고, 민속품 등 9,292건(10,793점) 지정문화재 : 보물 2점, 민속문화재 64점, 서울시지정문화재 2점	
운영방향	전시	자수, 장신구, 보자기 전시 등 소장품 중심의 전시와 외국대사관 및 작가들과의 연합 기획전
	교육	● 전통자수, 퀼트 전문가 양성을 위한 1~2년 과정 운영 ● 학부 교양과목 <문화예술시간여행> 개설 및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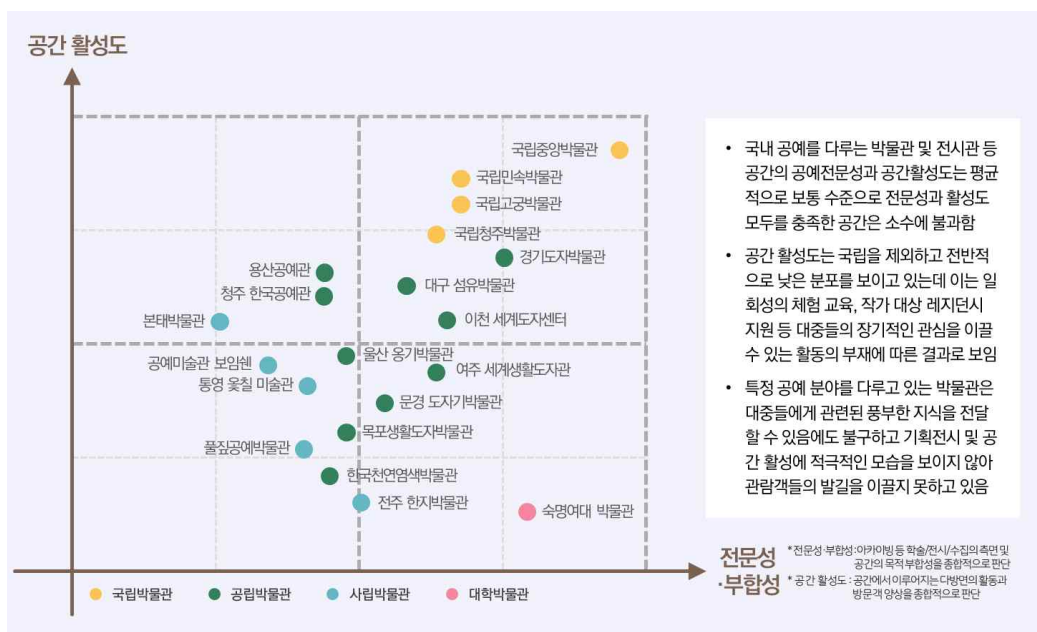


3.2.3.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사례 종합

□ 전문성·부합성 및 공간 활성도로 국내 공예 박물관 실태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 박물관이 사립 박물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중들의 장기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전문성·부합성 : 아카이빙 등 학술/전시/수집의 측면 및 공간의 목적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공간 활성화 :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활동과 방문객 양상을 종합적으로 판단

[그림 3-2] 공간 활성화 및 전문성·부합성 기준에 따라 평가한 국내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3.3 해외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3.3.1 해외 국립공예박물관

□ 파리 국립 예술공예박물관 Arts and Craft Museum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예/과학기술 박물관으로 1794년에 설립되었으며, 과거 일부 집권층만이 향유할 수 있던 과학기술의 산물을 일반 시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알리고자 설립함
- ‘동시대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유산의 보호와 진흥’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으며, 1794년에 과학 기술 도구와 발명품을 보관하는 단체로 설립되었다가 8년 뒤 일반에게 공개하게 된 것이 설립배경임
- 초기 기계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장인의 솜씨였기에 과학기술 역시 공예의 일환으로 보고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함
- 프랑스의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평가됨

[표 3-22] 파리 국립 예술공예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794	운 영 주 체	국가
위치	프랑스 파리		
소장품	● 약 80,000개 작품과 15,000개의 도면 중 2,400개의 작품만 전시 - 대표 소장품 :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라부아지에의 실험도구, 푸코의 진자		
전시실 구성	총 3층으로 구성		
	과학 장비, 재료, 건축, 통신, 에너지, 기계, 운송수단 등 7개의 주제에 따른 전시실 운영		



□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 렌윅 미술관 Renwick Gallery

- 미국의 근현대 공예 및 장식예술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동시대적 공예와 예술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시도하는 미술관
- 주로 19세기에서 21세기 사이 미국의 공예품 및 장식예술품을 전시하고 있고, 나무세공품, 도예, 조각, 금속세공품, 가수 등 전통적인 공예품뿐 아니라 사진, 미디어 아트, 컨템포러리 아트, 3D 프린터를 활용한 예술품 등 미국의 전반적인 비주얼 컬처와 관련된 전시를 다방면으로 진행하며 공예의 저변을 넓히고 있음
- 총 2개의 층으로 구성된 렌윅 미술관은 1층에는 특별기획전시, 2층은 렌윅 미술관이 소장하는 소장품 중심 중심의 상설 전시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전은 주로 규모가 압도적이며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만질 수 있는 작품도 전시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함

[표 3-23] 렌윅 미술관 개요

스미소니언 미술관 & 렌윅 미술관 미션	• 미국적인 경험과 세계적인 연결을 반영하는 창의적인 작품의 전시와 기념 • 미국의 예술을 수집하고 이해하고 즐기는 것에 주력	개관연도	1972
		위치	미국 워싱턴
		운영주체	국가
설립 배경	스미소니언	영국인 과학자 제임스 스미슨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미국의 박물관	
	렌윅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윌리엄 월슨 코코란이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수집한 예술품을 전시하기 위해 지어진 워싱턴 D.C. 최초의 미술관 • 1965년, 존슨 대통령이 렌윅 건물을 스미소니언 협회 산하 건물로써 예술, 수공예 및 디자인 미술관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함 	



□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 미국 스미소니언 협회 산하의 디자인 전문 미술관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관람객과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박물관
- 기업가 피터 쿠퍼의 손녀인 휴잇 자매가 설립하였으며, 1976년 스미소니언 협회가 인수하였으며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을 교육하고 영감과 힘을 주는 미술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음
- 제품디자인, 장식 예술, 작품, 벽 장식지 등으로 나누어 디자인의 역사와 현대 디자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음
- 주요 활동으로는 매년 미국 디자인의 혁신과 우수성을 알리는 디자인 작품을 선정하는 내셔널 디자인 어워드와 입장시 관람객들에게 인터랙티브 펜을 나눠줘 선택한 작품을 전시장 곳곳에 위치한 디자인 보드를 통해 작품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Pen experience가 있음

[표 3-24]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976	운영주체	국가
위치	미국 뉴욕시		
소장품	● 25만여 점의 디자인 작품 소장 - 주요 소장품 : 미켈란젤로의 초대 드로잉 등		



□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장식박물관

- 약 62개의 전시실을 통해 수세기에 걸친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장식품 및 공간을 전시하고 있음
- “우리의 환경을 디자인하다 Design our environment” 비전 아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헌하고 그것을 활발히 퍼트리기 위해 물질문화 및 그와 연관된 아이디어, 가치와 태도를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과거와 현재의 삶과 역사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확장된 디자인의 개념을 다루고 있음
- 1912년 왕령에 의해 ‘국립 산업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약 1500점의 소장품으로 출발하였으며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파리 장식미술관 등을 모델로 삼아 장인, 생산업자, 예술가, 감정가들이 배울만한 장소로서의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음
- 박물관은 4층에 걸쳐 6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소장품은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작품이고, 스페인 예술품뿐만 아니라 중국, 프랑스, 이집트 등 외국 예술품도 많으며 이는 수세기에 걸친 사치품, 일상용품의 수입과 예술적인 교류를 반영하고 있음
- 박물관 투어가 관람객들에게 취미활동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기를 바라며 문화, 교육적인 활동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워크샵, 스토리텔링, 콘서트,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표 3-25]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장식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912
위치	스페인 마드리드
운영주체	국가
소장품	유럽, 스페인, 중국의 장식 미술품 등 약 7만 점



□ 아일랜드 국립박물관 장식미술 & 역사관

- 아일랜드의 전통과 현대의 장식미술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장식미술을 통해 사회, 문화, 군사적 역사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획전 개최
- 2018-2032 비전으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짓기 Connecting Our Past and Our Future”를 갖고 있으며, 민속생활과 의복뿐만 아니라 무기류, 가구, 은, 자기, 유리공예, 아시안 예술과 아스가르드 등 아일랜드 유산을 반영하고 있는 장식예술을 전시하고 있음
- 1916 부활절 혁명 등 아일랜드의 군사 역사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전쟁, LGBTI+ 등 사회, 문화, 군사적 맥락 속 장식예술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기획전을 개최함

[표 3-26] 국립박물관 장식미술&역사관 개요

개관연도	1997
위치	아일랜드 더블린
운영주체	국가
소장품	150,000여 개의 소장품



□ 대만 가오슝 국립과학공예박물관

-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만 국립 박물관으로 생활과 관련된 응용과학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삶과 기술을 연결하고 사회적인 진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박물관
-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18개의 전시장이 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박물관이며 공예를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이슈로 풀어 박물관, 전시를 기획하고 있음
- 수자원, 물리와 기술, 생명과학, 식품 공업, 건강생활, 컴퓨터, 어린이 과학센터 등 생활

과 관련된 응용과학 전시물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진 체험실, 가상 유전 실험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음

[표 3-27] 가오슝 국립과학공예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997
위치	대만 가오슝
운영주체	국가



□ 인도 국립공예박물관 National Crafts Museum & Hastkala Academy

- 인도의 풍부하고 다양한, 현재에도 활동 중인 공예 전통을 기념하기 위한 국립공예박물관으로 전시실, 마을재현, 레지던시,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인도 독립 직후, 수공예 보호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제1차 및 제2차 5개년 계획 속에서 고려되었으며 국립공예박물관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음
- 불교 조각실, 민속·부족실, 텍스타일실 등의 전시관과 전통 마을을 구현하며 전시를 하고 있음
- 박물관 월별 활동을 통한 지역의 학교, 미술대학, 과학기술전문학교의 정기적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내 공예가 50여 명을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초대하여 자신의 공예를 시연할 기회를 주고 신규 시장 발견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초청으로 2주간 준 전문가 및 아이들,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류,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임

[표 3-28] 인도 국립공예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956
위치	인도 뉴델리
소장품	소장품 약 33,000점 - 약 60년에 걸쳐서 다양한 인도의 주에서 수집한 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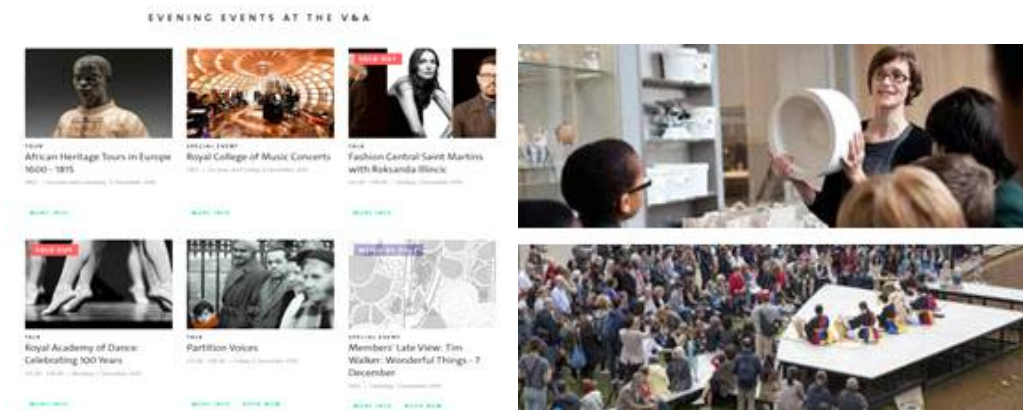
3.3.2 해외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

□ 빅토리에 앤 알버트 뮤지엄 Victoria and Albert Museum

-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적인 공예박물관으로 Art & Design 분야를 공예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물부터 현대 작품까지 꾸준히 수집하고 있고 방대한 수집품, 전시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약 5,000년이 넘는 인간의 창의력 역사를 아우르는 230만개의 오브제를 소장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세분화와 전문화가 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프로그램 다수 존재함. 난민, 인종, 젠더 등 사회적 다양성 포용을 위한 문화적인 해법과 다양하고 주기적인 강연 및 워크숍을 끊임없이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3]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 및 모습



- Art, Design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도적인 박물관으로써 디자인된 세계의 연구, 지식, 즐거움을 촉진시키며 많은 관람객들의 삶을 풍부하게 조성하는 비전을 갖고 있음
- 1851년 세계 최초로 열린 만국박람회의 수익금과 전시품을 토대로 하여 창립된 사우스켄싱턴 박물관이 훗날 빅토리아 여왕과 여왕의 남편인 앨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

[표 3-29]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개요

개관연도	1852	운영주체	공립(Non-departmental public body of 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방문객 수	3,967,566명(2018년 기준)		
소장품	Display : 박물관 내 소장품 전시. 사진, 공예, 조각, 인쇄, 도자기 등 다양한 분야 전시 Exhibition : 기획전시		
운영방향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만 점 - 중세 중국의 도자기부터 알렉산더 맥퀸의 이브닝 드레스까지 인간의 창의성의 역사를 아우르는 컬렉션 • 소장품 분류 - Spaces, period and styles, people, featured, material and techniques, places로 분류하고 있음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 아카데미 : 취미에서 전문분야 체험 등 넓은 범위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선생님,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직업 흥미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직무집중된 교육 프로그램 • MA 과정(Royal College of Art와 연계), 박물관 거주 프로그램(약 9개월 거주, 현대미술, 사진, 공예 레지던시 진행 중) 등 직접적으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 난민, 흑인 등 급변하는 사회 움직임 속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프로그램 	
	Research & Conser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로 연구부서를 설립한 박물관 - 연구 부서 산하에 V&A 연구협회(V&A Research Institute)가 V&A의 연구 분야를 지원함 	

□ 프랑스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 Musee Des Arts Decoratifs

- 장식품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재현해 관객들의 흥미와 실제감을 높이며 다양하고 현대 생활적인 분야 및 세부 주제에 관한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는 박물관
- 1882년 개관하여 중세부터 현대의 다양한 장식 미술품을 전시하는 사립 박물관으로서 각종 공예품을 비롯해 15세기 침실과 귀족들이 사용했던 화려한 가구 등을 전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식예술 수집품을 보유한 박물관 중 하나로서 15만 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음
- 보석과 가구 장식품은 주로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 계층의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명 예술가 및 디자이너들의 사적인 공간에 시대 분위기를 잘 살려 재형하고 있으며 2011년 자동차 전시회 등 전시분야를 사진, 광고, 실내 인테리어, 현대 디자인 제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프랑스만의 예술적인 문화의 생생한 보존 및 산업과의 연관성을 유지하여 ‘유용한 것을 아름답게’라는 목적을 가진 채 공예(applied arts)를 부흥시키고 산업과 문화, 디자인과 생산의 연결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콜렉터 그룹이 형성되었고 1905년 장식 미술 협회(Union des Arts Decoratifs)에 의해 설립됨

[표 3-30]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882	
위치	프랑스 파리	
설립목적	‘유용한 것을 아름답게’	
운영방향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의 주제와 5개의 시기로 분류, 전시 - 주제 분류 : 그래픽아트, 보석, 장난감, 벽지, 유리, 패션/섬유, 광고/그래픽디자인 • 인쇄, 패션, 텍스타일 박물관과 통합되면서 패션, 광고, 그래픽 아트까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분야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기획 전시를 개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투어, 강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아틀리에 및 스쿨을 통해 전문가 및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진행



- 패션과 장난감 등 자칫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주제도 박물관만의 차별적 관점으로 해석, 전시를 기획함

✓ 파리 장식미술박물관 전시 사례

신발의 역사(2019)

- 2013, 2017년 이후 3번째로 패션과 몸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 전시이며, 18세기 신발 소장품을 연구하다가 파생된 호기심을 시작으로 기획
- 동서 문화의 차이, 지역 환경의 차이 등 예술품을 넘어 당시의 시대, 문화적 맥락까지 살펴 보며 신발의 문화적인 중요성, 일상의 삶에서 필수품인 신발, 중세부터 현대까지 신발과 걸음 걸이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함
- 신발, 그림, 오브제, 사진, 영화와 광고 등 약 500여 개의 전시품을 통해 일상적인 물건이 어떻게 특별한 물건이 되는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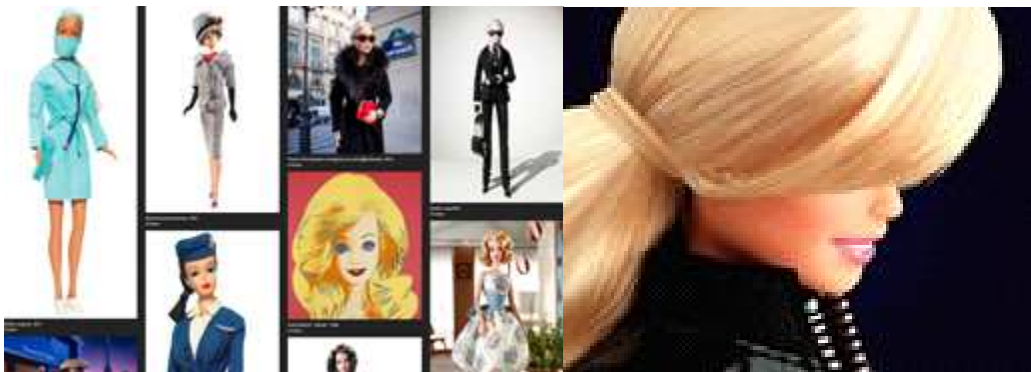
[그림 3-4] 전시 <신발의 역사> 중 주요 전시품



바비(2016)

- 2016년에 열린 전시로, 프랑스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대규모 바비 전시이며 약 24만 명의 관람객이 관람한 인기 전시였음
- 약 700개의 바비 인형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장난감 소장품 전시를 통해 인형이라는 장난감의 탄생과 변화의 과정도 전시함
- 바비의 삶을 전시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순수한 기쁨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1959년부터 이어지는 바비의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인 맥락과 함께 그 시대의 상징적인 존재를 제시함

[그림 3-5] 전시 <바비>의 주요 전시품



□ 독일 베를린 장식예술·공예박물관 Museum of Craft/Decorative Arts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장식예술·공예 관련 박물관으로 방대한 컬렉션의 수장방식이 돋보임
-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22회의 전시를 열었으며 주로 공예(도자기, 금속 등), 패션, 오브제 위주로 전시하고 있음

[표 3-31] 베를린 장식예술·공예박물관 개요

개관연도	1868	
위치	독일 베를린	
운영주체	사립(Stiftung Preussischer Kulturbesitz 재단)	
운영방향	아카이빙	- 초기 중세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금속/유리/도자공예품, 의류, 디자인, 가구 등 다양한 시대와 종류의 예술품을 보유함
	교육	- 주로 주말에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유료인 경우가 많음 - 어른, 청소년, 가족, 단체 등 다양한 대상별 프로그램 진행 중 - Curator Tour, Exhibition Talk, Workshop 등
	연구	- 정기적으로 기록, 연구, 발행, 발표를 하며 장식예술의 영역에서 과학적인 보존 전문성으로 유명함 -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요 주제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의류, 르네상스 시대의 가구 디자인 등



□ 독일 마이센 도자기 박물관 Meissen Porcelain Museum

- 유럽에서 도자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공간으로 도자 제작 순서별로 장인들이 직접 시연하는 모습도 관람할 수 있음
- 마이센 도자기의 300년의 역사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자기 제조의 풍부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과거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주문제작 작품이나 다양한 모티브를 참고로 완성한 작품들을 전시
- 공장, 박물관, 아울렛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마이센 도자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고, 현재 전문 수집가용의 고가 라인과 젊은 중산층 소비자를 위한 저가 라인 제품 모두 접할 수 있음

[표 3-32] 마이센 도자기 박물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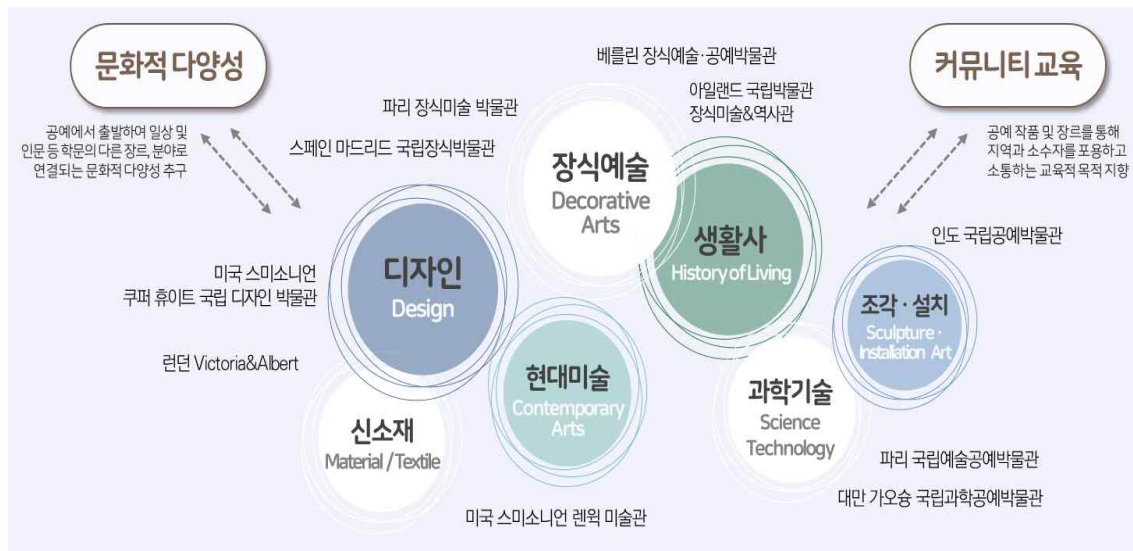
개관연도	1710 공장 설립
위치	독일 마이센
운영주체	사립
전시실 구성	1층 : 워크숍 공간 2-3층 : 전시 공간



3.3.3 해외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사례 종합

- 국외 주요 공예 관련 박물관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개인 혹은 국가의 소장·수집품의 수장공간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어 공예의 확장적 의미와 가치에 집중하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장식예술, 디자인, 과학기술,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전시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공예를 통한 인문 및 역사, 디자인, 다양성, 커뮤니티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그림 3-6] 해외 공예 관련 박물관 및 전시공간 분석 결과



3.4 종합 시사점

① 전문 • 부합성 : 공간의 목적 부합성 및 학술적 전문성은 대체로 높으나 보여주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상이함

- 박물관의 학술/전시/수집의 전문성과 박물관 외 공간의 경우 그 목적 부합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대표 장르/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기획/특별전시 등 공예에 대해 공간이 가진 풍부한 전문성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은 많지 않음

② 공간 활성화 : 다양한 공예 관련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거나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어려움을 보임

- 대부분의 공예 관련 국내 공간에서는 관람객 대상 일회성 체험 등 단발적인 전시 연계 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의 지속적인 방문 유치와 대중적 인지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큼

③ 공간과 콘텐츠 : 공예 박물관의 규모 및 공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국외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주목할 만함

- 지역의 공예품을 전시하는 전시관부터 V&A와 같은 초대형 공예 박물관까지 공예를 다루는 공간의 규모와 형태에는 일정한 기준 및 경향성을 찾기 어려움
- 국외 공예박물관의 경우 공예를 발판으로 다양한 전시 및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어 유의미함

④ 공예의 범주 : 전통적인 범위의 공예보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와 장르를 다루고 있는 확장성 확인 가능

- 해외에서는 공예(Craft)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매우 포괄적임에 따라 장식예술, 초기 기계 등 과학기술, 생활사와 현대미술 등을 포괄하는 경우가 다수

⑤ 설립배경 • 목적 : 대부분의 국외 공예 관련 박물관은 기존의 수집품에서 출발해 수장/전시 공간의 필요성을 그 목적으로 함

- 공간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박물관이 건립된 사례는 찾기 드물며 대부분 긴 세월동안 개인 혹은 국가에 의해 수집된 물품을 대중에게 공개, 수장하고자 설립됨

4. 심층인터뷰

- 4.1 인터뷰 개요
- 4.2 주요 이슈별 인터뷰 내용
- 4.3 인터뷰 결과 종합
- 4.4 종합 시사점

4 심층인터뷰

4.1 심층인터뷰 개요

- 국립공예박물관 설립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주안점을 바탕으로 정리, 공예문화 내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 진행

[그림 4-1] 심층인터뷰 프로세스



-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를 위해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함
 - 공예문화 및 산업계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국립공예박물관 설립을 둘러싼 공간의 필요성과 정체성,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함
 - 2019년 11월 2주부터 4주까지 6명의 공예 관련 전문가 및 관계들의 의견을 수렴함

[표 4-1] 1차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분	인터뷰 대상	소속 / 특징	인터뷰 날짜
교육자	허보윤 교수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 공예진흥정책 기초연구, 공예백서 등 책임연구원	11/15
	최공호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 서울공예박물관 총괄계획가	11/20
기관담당자	서윤경 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팀 / 국가전담기관	11/22
박물관 관계자	장기훈 관장	경기도자박물관	11/18
	홍경아 학예팀장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11/21
창작자 및 기획자	박경아 대표	(주)세간 / 부여 자온길 프로젝트	11/20

□ 주요 이슈 및 안건

[표 4-2] 국립공예박물관 설립 관련 주요 이슈 및 질문

이슈	안건
공예문화 및 공예산업의 현황과 이슈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 문화산업의 현황과 활동 경향 파악 - 관련 사업 및 기관 현황, 예술가/종사자의 활동 및 대중 이용/소비 현황, 국내외 우수 공예 공간 및 박물관 사례 추천 등 • 국립공예박물관의 사업대상 범위 확대 - 공예문화산업의 분류 및 범주, 박물관에 부합하는 전시 범위 등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예박물관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 현장의 필요에 따른 기대와 그에 부합하는 조성 방향, 설립의 시급성 등 • 국립공예박물관의 목적과 역할, 지향점
국립공예박물관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예박물관의 위상에 따른 설립 및 운영 방향 제안 - 운영체계 및 방향, 공간 구성, 콘텐츠 프로그램, 수장품, 아카이빙 등 • 향후 대중적 활성화 방안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견해

4.2 주요 이슈별 인터뷰 내용

4.2.1 공예의 특성과 현재

(1) 공예의 특성

□ 공예의 범주와 특징

- 공예의 용어 및 경계에 대해 정책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공통적으로는 공예의 일상성과 경험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범주를 자연스럽게 수용함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에 관련된 게 공예예요. 그런데 디자인의 개념에 플러스 제작의 개념이 더해진 것. 작가가 디자인도 하고 만드는 제작까지 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공예라고 생각을 해요.” (박경아 대표)

“공예품은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쓰는 과정에서 각자의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그런 성숙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죠. **삶의 예술**, 이게 감상용 예술품과 공예가 가지는 차이이고 정체성이예요.” (최공호 교수)

“공예라는 게 범주가 크기적으로도 넓고 또 이 안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렇기는 해요. 미술장르는 시기적으로 현대 이전의 어떤 유물들을 다루는 박물관과 현대라고 추정되는 시기 이후의 미술들을 다루는 현대미술관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공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만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허보운 교수)

“공예를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는 수저부터 금관까지가 공예예요. 보통 처해진 상황이나 연관된 직종이나 이것과 연관해서 공예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각각인데, 공예를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저는 빼고 금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최공호 교수)

“통상적으로는 공예를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나눌 필요까지 있을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전통적인 범주에 들지 않는 공예도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그걸로 원갈 만들게 되면 그건 새로운 장르의 공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일단 포괄적으로 다 공예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시켜서 담는 게 좋다고 봐요.” (장기훈 관장)

□ 공예의 가치

- 누구나 쉽게 접근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예의 가치에 공감하며 앞으로 다양하게 변어나갈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공예라는 게 일종의 ‘소스(원료, 기반)’로서의 가치도 존재하거든요. 잘 된 공예품 디자이너와 좋은 물건을 프로토타입으로 대량생산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전통공예품의 일부를 대량생산 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한다든가 다른 분야들과 맞닿는 측면이 충분히 많고 더 만들 수 있어요.” (허보윤 교수)

“모든 영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삶의 기술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하기 되게 쉬운, 얘기하기 되게 쉬운, 또 어떤 얘기를 해도 좋은 소재예요. 어느 나라에도 그릇은 있잖아요.” (홍경아 학예팀장)

“지금은 공예환경이 다 바뀌고 있어요. 소위 메이커라고 하는 분들이 3D프린터로 의수도 만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도 공예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새롭게 주어진 소재와 도구까지 미래엔 포용할 수 있어야지, 처음부터 딱 정해버리면 앞으로 생겨나거나 변해가는 공예의 모습을 못 쫓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을 넓게 열어 놔야 할 거예요.” (장기훈 관장)

- 공예는 환경문제 등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현대사회의 문제에 해결 지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정말로 절실히 원하는 건 공예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산업사회가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환경문제나 자원 문제, 이런 엄청난 폐해도 함께 낳았잖아요. 마트에 가서 천 원짜리 머그컵을 샀을 때와 고심하고 고른 3만 원짜리 머그컵을 샀을 때 그 사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아끼는 정도와 버릴 확률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쓰레기가 많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문제의식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낼 것이냐 하는 해결 방안을 공예적인 인식이나 사고에서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사는 순간에 천 원짜리 컵 30개를 안 살 수 있어,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허보윤 교수)

“진짜 예쁘고 아끼는 그릇에다가 밥을 먹었을 때의 느낌하고 플라스틱에다가 먹었을 때 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왜 집에서도 마실 수 있는데 커피숍에 와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를 마셔요? 그게 공예의 가치예요. 그릇 하나만 잘 고르면 한 가족의 끼니가 행복해지고 이야깃거리를 풍부하게 해주기도 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공호 교수)

(2) 공예의 현재

□ 공예의 부흥

- 아날로그의 재발견과 라이프스타일, 생활문화 전반과의 연계지점을 고려했을 때 공예는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음

“이제 점차 시대가, 조금 특별한 사람이 만든, **손으로 한 것들과 그리고 나만이 아는 것들, 쉽게 만들고 쉽게 쓰고 버려지지 아닌 것들이** 저는 점점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금 공예에 대한 인식과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2-30대들이 좀 더. 저는 새로운 시장일 것이라 생각하고.” (박경아 대표)

“시대가 바뀔수록, 더 **침단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손의 가치를 더 열망해요.** 빛이 강하면 그늘도 짙은 법이듯, 근대 생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나 반성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손의 가치인 것이죠. **기계의 대척점에 있는 손의 가치,** 공예로 문명의 대안을 상상할 수도 있죠.” (최공호 교수)

“요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힙한 소재들이** 중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핫한 공간, 장소를 가면 그곳에서 공예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협업하거나 그분들이 실제로 공간을 채운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많아 보여요. 어떤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택하는 소재, 물건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작가, 작품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외에도 개인이 필요로 하는, 대량생산이 되지 않는 그냥 나의 오더 메이드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죠.” (서윤경 팀장)

“**한국공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반응도 되게 좋아요.** 현대미술은 교류가 있는 편이지만 유물이나 공예에 관련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재밌어 하세요.” (홍경아 학예팀장)

□ 현장의 목소리

- 공예의 문화예술적 가치에 주목한 정책/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해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공예가 우리나라 **산업체계에서 보면 제조업으로 분류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계가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 같은 것들을 못 받기도 하구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있지만 법 하나에 여러 목적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공예 문화 쪽은 아직도 관광진흥법 이런 다른 법에 태워져 있죠. **공예의 예술, 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는 법이 필요한데** 공예가 아무래도 산업이면서도 수공예 작품이 대상이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윤경 팀장)

“공예박물관이든 뭐든 공예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다 성립하지 않잖아요. **공예가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책이** 되게 중요하죠. 공예는 특히 **시설이나 설비가 중요한데** 지금 있는 곳들에는 특화 레지던시라고 해도 설비가 거의 없어요. 공간이나 작업실 지원 그런 것들이 되게 절실하죠.” (허보윤 교수)

“현장에서 주요하게 목소리들이 모아지는 게 **판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인지도 재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지 소비로까지 이어지니까 그 두 개가 가장 큰 요청이에요.” (서윤경 팀장)

“공예 작업은 시간을 버텨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청년들이 그 시간을 버텨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특히 **초기의 작가들에게 공공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박경아 대표)

“해외에서의 반응은 판매 추이를 봐도 나쁘지 않고 해 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점은 국내의 **공예분야 아카이빙이나 매니지먼트가** 없다는 거예요. 정착된 시스템으로 해외의 프로들을 상대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해요.” (서윤경 팀장)

4.2.2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과 목적성

(1)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 공간보다 설립목적의 중요성

- 박물관 설립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성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무조건적인 건립 이전에 운영 및 콘텐츠, 분명한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박물관을 자꾸 만드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관적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좋은 얘기는 많이 했는데,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갈 것 같지 않거든요. 지방에도 국립박물관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잘 안되는 곳들이 많은 데다가 그 곳들의 역할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홍경아 학예팀장)

“이런 **박물관이 공예란 이름을 달고 엄청, 무조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지방 분권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방에 굉장히 아카이빙이 잘 된 볼거리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언가가** 생길 필요는 있다고 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허보윤 교수)

“박물관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봐요. ‘박물관의 숫자가 문화의 발전을 말해주는 척도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일반 제도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서 하는 평생교육 기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평생 동안에 내가 문화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하나 더 얻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최공호 교수)

“뭐라도 사람들이 공예를 접할 수 있는 게 생긴다면 무조건 환영이에요. 그래야 많은 작가도 살아남고 저 같이 공예를 좋아하는 사람도 살아남고 더 훌륭한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공예가 너무 많을 거예요.” (박경아 대표)

□ 대표적 공간의 필요성

- 국가적 차원에서 높은 영향력을 기반으로 국내 공예의 대표 공간이자 정책적 공간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예업계에서도 공예의 정의가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국립공예박물관이 생긴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공예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에 대한 합의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립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죠.” (서윤경 팀장)

“국가에서 공예가 산업이라는 인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덴마크에서는 국가적, 정책적으로 하잖아요. 동남아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공예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관광같은 부분과 가치 있게 결합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 시대가 오거든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훌륭한 손을 가진 작가들이 너무나 많은데, 활용을 못 하죠. 그런 의미에서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은 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박경아 대표)

“해외 페어에 참여를 하면 이 작품들을 한국에 가면 어디서 볼 수 있는건지 물어 보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설적으로 전시가 된다면 모여 있는 그런 대표적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박물관 안에 이런 좋은 작품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도 좋죠.” (서윤경 팀장)

(2) 공예박물관의 역할과 목적

□ 활용의 가치

- 박물관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곳이자 그 자체의 가치 및 활용이 충분히 다채로운 공간이기에 여러 역할을 고려했을 때 박물관이 가장 적합한 공간 형태일 것으로 보임

“박물관은 보물창고잖아요. 박물관의 주된 역할인 유물 관리나 연구, 전시 모두 공통점이 과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미래에 다 잘 전달해주겠다는 거예요. 정신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예박물관도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죠. 과거의 것을 후대에 얼마나 전달해 줄거냐에 방점이 찍히는 거고...” (장기훈 관장)

“이 뮤지엄(박물관)이라는 게 꼭 과거의 유물을 보관만 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아카이빙이 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한다거나 거기에 연구팀을 둔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제일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요.” (허보운 교수)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 있는 디자이너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어느 때 박물관에 가느냐, 했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이디어가 고갈됐을 때 박물관에 간다’. 그런 말을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술관, 박물관 이런 공간을 표현할 때 항상 ‘먼지 나는’, ‘옛날 게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오히려 영감을 받는 공간.” (홍경아 학예팀장)

□ 교육적 목적

- 최근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며 인문/체험/취미 등 다방면으로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추세임
- 아카이빙하고 있는 유물 등을 직접적인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차별적인 교육일 전개할 가능성이 있음

“모든 박물관이 다 그렇지만 21세기형 박물관이라고 하면 교육 쪽에 많이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를 모으고 잘 관리하고 연구해서 성과를 전시로 보여준다, 까지가 과거의 박물관인데, 이제는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확장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대민성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공익성을 갖는 거라서. 저희도 교육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장기훈 관장)

“박물관이 하는 교육의 강점은 유물을 교보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인간이 재료를 특별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많은 물건을 만든 것들이 있어, 이런 걸 한 번 보고 뭔가 너는 어떤 걸 만들래? 이런 게 가능한 그런 교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교재.” (허보운 교수)

“박물관이라는 게 결국 정규교육을 마친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꼭 강좌를 연다는 게 아니라 전시나 워크숍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교육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서윤경 팀장)

4.2.3 국립공예박물관의 조성 방향성

(1) 국립공예박물관에 거는 기대

□ 공예의 가치를 일깨우는 공간

- 공예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대중을 위해 공예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려주는 공간으로서 기능 필요

“이 기관은 공예가 뭔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관이 되는 거죠. 기존의 박물관이 가지는, 과거의 유물과 역사를 보관하는 의미의 아카이빙이라기 보다는 **지금 공예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화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 과거의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 다기보다 **기존의 것을 보관해서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허보윤 교수)

“이제는 좋은 콘텐츠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관람객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럴 때 공예박물관이 고루한 아카이빙 전시가 아니라, **공예의 산업문화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키워드를 던질 수 있는 곳**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나 매체를 통해서 ‘**내가 겪고 사용하던 게 알고 보니 공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윤경 팀장)

“공예박물관이 생기면 지금부터라도 전통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 간단하지만 **선조의 지혜가 담겨있고 아름답고 쓸모 있고 이런 공예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기훈 관장)

“현대공예든 전통공예든 전통의 맥과 무관하게 갈 수는 없어요. **다 자기가 딛고 있는 땅, 내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창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뿌리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존중 받고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와서 옛날 것도 배우지만 그러면서 내 생활을 바꾸는 데 영향도 받는 거고요.” (홍경아 학예팀장)

□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는 공간

- 단순히 예술 장르로서 존재하는 공예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가 뿔어나올 수 있는 담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공예박물관에서는 단지 예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사회적인 것을 같이 공유하는 곳이 되길 저는 기대해요. 저는 공예가 그냥 예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큰 인간의 어떤 삶과 일상의 문제지요.” (허보윤 교수)

“결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끝에 머물렀을 때, 더 이상 뭘 할까 라는 고민을 할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는 것처럼 고민이 있을 때 찾아지는 박물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공예는 기교문화를 얘기하기에도, 문화다양성을 얘기하기에도, 좋은 소재예요. 어느 나라에도 그릇은 있잖아요. 얘기하기가 굉장히 편안한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공예 그 자체는 아주 품위와 품격, 가치가 있는 물건일 지라도 공예박물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최고의 담론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홍경아 학예팀장)

“공예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공예와 일상의 문화를 접목을 시키지 못할 뿐이죠. 예전보다 문화에 대한 향수 욕구라든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공예를 학술적이고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것으로 삶에서 자꾸자꾸 격리시키다 보니 그 욕구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죠. 이제 이런 역할과 박물관의 역할이 끝을 맺어야죠.” (최공호 교수)

“오늘날 우리가 공예라고 말하는 과거의 유물들은 그 당시에는 생활소품같이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쓰였던 거잖아요. 그것과 맥을 이어서 지금 동시대에 쓰일 수 있는, 우리의 생활양식을 대변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서윤경 팀장)

(2) 국립공예박물관의 지향점

□ 친근한 일상의 공간

- 공예의 일상성을 반영해 자연스럽게 방문하고 공예를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서의 지향점에 공감

“공예박물관이 생긴다면 그곳은 사람들과 공예를 만나게 하는 곳이어야 해요. 박물관 내의 전시관뿐 아니라 서점, 빵집, 갤러리, 카페 이런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컵과 의자, 이런 공예품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놀고 갈 수 있도록 공간이 재밌으면 좋겠고 조금 힘했으면 좋겠어요. 공예가 젊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박경아 대표)

“지금까지 공예품을 예술품으로만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감상하세요, 이러니까 내 삶과 연관을 못 시켰죠. 내 삶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국립공예박물관에서 하면 모두에게 박수 받을 만 해요. 명확해요.” (최공호 교수)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너무 옛날 유물이 있거나 하는 좀 고리타분한 시간적 거리감이 있을 것이고 현대미술 같은 경우엔 너무 어려워서 거리감이 있을 텐데, 공예는 조금 더 친근하게, 조금 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허보윤 교수)

“공예를 작품이나 전통 이런 것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바라본다면 박물관에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기존에 있는 유물 중심의 감상용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한계도 있고 그렇게 가셔도 안돼요. 앞으로의 공예박물관에는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공예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어야 해.” (최공호 교수)

✓ 공간 사례 : 공간 전체로 확장되는 박물관

- 작품을 공간으로 확장시키거나 작품을 공간으로 재현하는 전시 기획 사례들은 전시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작품의 일부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관객의 적극적인 관람 참여를 위해 직접 경험을 장려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2015 디올 에스프리 - 디올정신

- ‘디올 에스프리-디올 정신’ 전시에서는 전시실마다 각 복식에 맞는 공간 연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2016 헤더웍 스튜디오 :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

- 헤더웍의 기존 체어 디자인을 기반으로 헤더웍 스튜디오가 최초로 디뮤지엄 전시를 위해 만든 한정판 의자를 제작했으며, 관객들이 직접 앉아 체험해 볼 수 있었음



2019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

-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 체험전시에서는 고흐가 실제로 생활했고 작품에도 등장하는 ‘푸른 방’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2019년 관객과 1800년대 고흐가 조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함
- 또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서 직접 제작한 입체적인 유화, 그림 속 지푸라기 등을 전시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전시로 진행, 관객들의 흥미를 자극함



□ 높은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

- 국립박물관의 기대치를 반영할 때, 한국 공예의 질적/미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지향도 필요함

“공예가 삶하고 되게 가깝다고 하지만 막상 박물관에서 다루는 공예를 들여다보면 그것보다는 ‘굉장히 우수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립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더 그럴 거예요. 그 나라의 가장 우수한 예술품이라는 걸 먼저 얘기 할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적 감각이나 수공예 실력을 강조해서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겠다 하는 면에서는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경아 학예팀장)

□ 창작자를 위한 지원도 담당하는 공간

- 국내 공예정책의 물리적 거점이 부족함에 따라 국립공예박물관이 지원의 역할도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존재함

“저는 이 공예박물관은 박물관의 역할 반, 소품의 역할 반 했으면 좋겠어요. 소품도 되고 전시도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박물관에 많이 올 거예요. 작가들을 좀 더 많이 유도할 수 있고 작가들이 전시를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발하게 전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세일즈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부분과 공예를 읽고 쓰고 먹고 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 이런 게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좋겠죠.” (박경아 대표)

“과거를 후대에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일반적인 박물관, 사립박물관의 기본적인 역할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국립기관으로서 후대의 공예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공예박물관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물관에 들고 나는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고 공예인들을 상대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강의를 하러, 전시에 출품을 하러 작가들이 직접 박물관에 왔다 갔다 할 때 직관적으로 지원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기훈 관장)

4.2.4 국립공예박물관의 콘텐츠와 기능성

(1) 아카이빙 및 작품 수집

□ 확장적 아카이빙

- 박물관의 기본적인 목적이자 기능인 아카이빙에 있어서는 목적성에 충실하나 현대의 생활까지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기본적으로 국립공예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좋은 공예작품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자를 보러 오사카에 있는 청자박물관을 가잖아요. 이것처럼 외국에 보면 한국에서 가져간 것들도 많고 한국인이 기증한 것들도 많고 한데 그런 외국에서 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작품들을 환수해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국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박경아 대표)

“지금 우리가 공예라고 부르는 것들은 과거로부터의 맥을 이어서 우리의 생활양식을 대변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 조선시대 이후부터 우리의 생활양식을 대변했던 작품들을 모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별로 우리의 양식사들, 민속박물관보다는 좀 더 예술적이고 역사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서윤경 팀장)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서도 공예품을 다 다루지만 그런 박물관에서는 유물 형태, 그러니까 그 가치가 과거라는 시점에서 출발한다면, 공예박물관은 전통공예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시점에서 제작하는 현대의 것까지 아우르는 곳이 되어야죠.” (허보운 교수)

(2) 전시

□ 전시의 방향

- 유물보다 전시의 방향으로 박물관의 차별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특히 다각적으로 접근, 연결될 수 있는 공예의 특성을 활용해 변화하는 다양한 전시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견

“전시로 얘길 하자면 전시의 여러가지 기법 중에 가장 다양하고 화려해지고 현대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는 전시 기법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공예 박물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물관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은 관람객의 삶이 변화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전시로 그런 지점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계속 변화된 전시로 다양한 공예를 보여 주는 게 박물관이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런 면에서 공예는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홍경아 학예팀장)

“박물관들이 상설전시에서 꼭 어떤 재료나 시대별로 엮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나의 화두를 잡거나 하죠. 저는 이 공예박물관이 꼭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 그때의 화두를 잡는 데에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윤경 팀장)

“같은 유물이 공예박물관에 왔을 때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을 때 **똑같은 유물이지만 전달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공예박물관이 훨씬 더 교육적인 박물관일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제대로 된, 확실한 정보, 예술품에 대한 기대치가 더 많을 거고요. 공예박물관은 생활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접목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가구 하나 가지고도 지역에 따른 특징이나 주거문화, 가옥 구조, 기후, 이런 다양한 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홍경아 학예팀장)

✓ 전시 사례 :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예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 918 2018 그 찬란한 도전〉

- 당시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치, 향, 소리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미디어 아트 등 첨단장치를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전시 기법을 사용함
- 2018년 12월 4일부터 2019년 3월 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전시 중 제 3부 ‘다점(茶店), 차가 있는 공간’
- 차가 고려인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에 주안점을 두어, 관람객이 시각과 후각, 청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함
- 전시장에 어느 사찰 입구에 있었을 법한 다점의 경치, 향, 소리 등을 첨단 장치를 사용해 재현

[그림 4-2] ‘다점, 차가 있는 공간’ 전시 사진



- 전통으로서의 공예뿐 아니라 현대와 접목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형식 및 방향으로 전시가 기획되어야 함

“20세기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공예가 기술적으로나 생산양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한국적인 거,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살릴 거냐**, 이런 게 박물관의 고민 중 하나죠. 전시를 하더라도 과거 유물을 주제로 해서 현대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를 하는 거고 전통 도예 공모전을 하더라도 얼마나 똑같이 모방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잘 계승 했는가, 전통의 테크닉이나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현대인들의 귀감에 맞게 어떻게 잘 바꿔 나갔느냐**, 이런 걸 주로 보는 거죠.” (장기훈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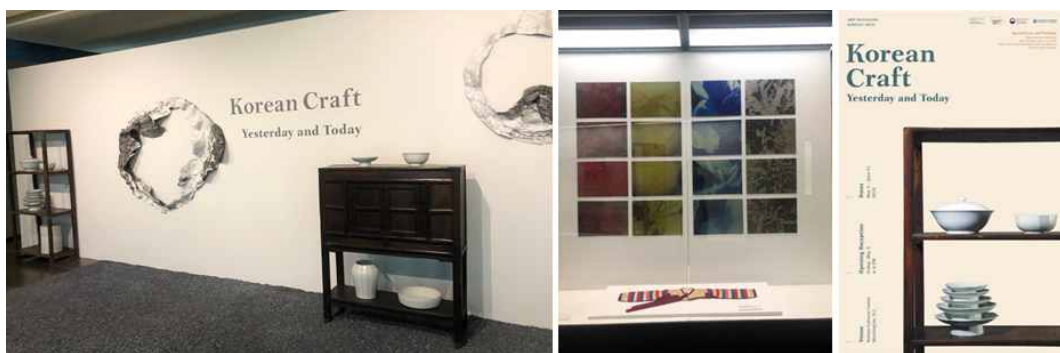
“저희가 가지고 나갔던 전시들 중에서 과거의 유물에 영감을 받은 현대작가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던 걸 외국에서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두지 않고, 현대 작가들이 재해석 하려고 노력을 보이니까 그런 점이 관심을 받았던 게 아니었나. (...) **옛날 것을 보고 현대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작품을 보고 자기가 자기 작품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영감을 더 집어넣는 거죠.**” (홍경아 학예팀장)

✓ 전시 사례 :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가의 만남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한국공예의 어제와 오늘〉

- 전통 한국공예와 현대 공예작가가 협업한 전시로서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문화의 흐름을 세계무대에 적극 알린 전시임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과 워싱턴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전시를 개최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최 사업의 일환으로,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문화의 흐름, 현대 한국문화의 선과 색을 주제로 해 한국 문화예술의 동시대성과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알리기 위해 마련함
- 15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사대부 계층이 일상에서 사용한 가구, 복식, 도자기를 현대 공예 작가가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 전시

[그림 4-3] ‘한국공예의 어제와 오늘’ 전시 사진



(3) 교육프로그램

□ 교육이 강조되는 곳

- 어린 시절부터 공예를 통해 역사, 문화 등의 교육을 실행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예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

“지금 공예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이유도 지금 기성세대들이 너무 어렵고 각박한 세대를 살아서 산업화 속에 묻혀 있던 수공예, 손맛, 인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이 생긴다면 아주 어린 학생들 때부터 공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길 수 있게 차곡차곡 가르치고 공예라는 것이 인간한테 좋은 거다, 편하고 유익하고 인간적인 거고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하는 걸 보여 줘야죠. 국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커야 어른이 되어서 각 층에서 그런 인식이 공감되잖아요.” (장기훈 관장)

“박물관에서 교육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옛날 것들이 어떤지 본다는 거예요. ‘왜’ 라는 거를 자주 찾아가게 되면 시대랑 문화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그 시기에 그 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했는지, 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홍경아 학예팀장)

✓ 공예교육 사례

〈독일, 발도르프 교육〉

- 1919년 독일에서 제창된 교육사상 및 실천으로 개별 학생을 고려한 전인 교육의 일종이며, 전세계 80여개국에 걸쳐 약 900여개의 학교, 1800여개의 유치원, 700여개의 관련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의 육체와 영혼은 아이가 보고 만지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기계적인 학습매체가 아닌 직접적인 상호교류를 중요시 여김
- 발도르프 교육은 육체, 마음, 정신의 건강한 형성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수공예 수업시간을 통해 쓸모가 있으며 예술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풍부하고 다양한 수공예 수업은 정제된 의지의 형성과 학생의 실질적 삶의 방향을 촉진시키는 데 영향을 줌

[그림 4-4] 발도르프 교육을 적용하는 현장 모습



- 박물관 내 전시와 소장품 등을 활용하여 공예를 통한 인성 및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능성

“공예는 사회교육을 확산되게 하는 매우 좋은 장르예요. 공예 안에는 인간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교육으로의 확장이 굉장히 쉽거든요. 일반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박물관에서 할 수 있고, 확장된 교육 속의 공예를 통해서 이런 저런 경험도 해보고 ‘아, 내 일상에 만들어지는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조금 더 애정도 생기고…. 뭔가 구조를 만들고 계획을 해서 실행과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죠.” (허보운 교수)

“박물관의 교육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모티브로 교육적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딱 도자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도자기를 내놓고 사람 사는 내용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요즘에 좋아하는 융복합 이런 식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여기 박물관에도 필요하죠.” (홍경아 학예팀장)

“그 박물관이 아카이빙한 자료라든가 전시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공예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교육도 가능하고요. 또 공예라는 게 점점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물상을 직접 다루는 거라 사람들이 취미나 여가나 이런 활동으로 그리워하거든요. 취미교육부터 전문교육까지 그런 종류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역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허보운 교수)

✓ 공예교육 사례 : 런던 V&A Victoria and Albert Museum 교육 프로그램

〈늦은 금요일(Friday Late)〉

- 매주 금요일 미술관의 입장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퍼포먼스, 영화, 설치예술, 토론, 디제잉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주요 예술가 및 신진 예술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그 동안 박물관이 주로 중년층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되었던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젊은 연령의 관객들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며 이후 런던의 다른 미술관에서도 도입하고 있으며 문화의 폭을 가장 넓고 동시대적인 경계까지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음

[표 4-1] Friday Late 프로그램 개요

대상	누구나	비용	무료
목적	컨템포러리 비주얼 문화와 디자인의 모든 측면의 진흥		
과정	매월 마지막 금요일 18:30 ~ 22:00 (5월, 12월 제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템포러리 비주얼 컬처와 디자인의 모든 양상을 찬양하는 프로그램 - 퍼포먼스, 영화, 설치예술, 토론, 디제잉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주요 예술가 및 신진 예술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림 4-5] 늦은 금요일 프로그램 사진



〈Communities〉

-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이 낯선 사람들을 위한 방문 지원뿐만 아니라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루는 분야
-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박물관이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아우르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여 방법을 탐구할 필요성에서 시작됨
- 치매환자, 지적 장애인, 장기입원환자 등의 박물관 참여를 유도해 예술, 디자인, 퍼포먼스 분야와 건강·사회보장 및 사회 복귀를 연결시키는 프로젝트 진행 중
- 그 외에도 난민, 흑인 아프리카인의 유산, LGBTQ 등 다양한 그룹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표 4-2] LGBTQ 프로그램 개요

대상	LGBTQ 포함한 누구나	비용	대부분 무료
목적	LGBTQ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야를 확장시킴		
과정	비정기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BTQ 워킹 그룹은 그동안 작품 속에 김춰져있던 LGBTQ 역사를 밝혀내고, 연구, 이벤트, 토의 및 토론을 통해 LGBTQ의 정체성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갤러리 투어, 영화상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그림 4-6] LGBTQ 프로그램 사진



4.2.5 국립공예박물관의 입지와 공간

(1) 입지

□ 입지적 기준

- 지역거점 박물관에는 지역성이 반영되므로 입지 선정시 지역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입지 기준에서는 방문객 수요보다 박물관 자체의 질적 우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국립박물관도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두게 되면 그 지역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공예박물관이 전주에 생긴다고 하면 한복, 한지 같은 지역성을 무시할 수가 없고 광주라고 하면 도자기, 통영이면 나전칠기, 이렇게 그 지역에서 중심으로 하는 공예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점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런 저런 거 없이 아무데나 사람 많이 온다고 덜컥 놓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장기훈 관장)

“박물관은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박물관이 좋으면 당연히 사람은 올 거고, 이걸로 인해서 전국에서 일로 다 오고 전 세계에서 올 거야, 이 자신감이 없으면 뭐하려고 국립을 지어요. 그런 자신감은 있어야지.” (홍경아 학예팀장)

- 문화, 예술적 기회가 많은 수도권보다 지역만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할 경우 경쟁력 강화 예상됨
- 단순히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지역 자체의 스토리와 경쟁력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서울에는 서울공예박물관이 있으니까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건 너무 좀 편의적인 접근이지 않을까 싶고, 지방이 소외된다고 해서 이 공간이 특정한 지방 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그게 소화가 될런지도 의문이에요.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입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서윤경 팀장)

“저는 국립공예박물관이 서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로컬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서울에는 너무 뭐가 많아요. 로컬로 국립공예박물관이 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역만의 스토리와 문화유적이 있는 그런 곳에 공예박물관이 들어온다면 저는 훨씬 파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경아 대표)

“서울공예박물관과 비교해서 똑같이 서울에 있다, 이런 경우라면 더 차별화의 문제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질 텐데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에 있거나 이러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보운 교수)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명분도 있고요. 국립공예박물관이 지역에 생기면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다른 지역에 분관들도 만들 수 있잖아요. 나쁠 게 없죠.” (최공호 교수)

(2) 공간적 특성

□ 공간의 방향

- 박물관 규모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전시품과 다양한 주제 및 공간을 활용한 기획전시가 돋보이는 박물관을 기대함

“규모가 꼭 커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커도 상설 전시로 채우기도 힘들고, 상설전시는 일부만 해놓고 계속 많은 컨셉과 주제로 기획전을 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소장하지 못했던 작품들도 그때는 어디서 계기적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니까.” (서윤경 팀장)

“공예박물관이면 건물조차도 상징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한다고 봐요. 그 자체가 하나의 설치 같은, 박물관만의 시그니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V&A에 가면 유리공예가의 작품이 천장에 딱 걸려있고 자연사 박물관 가면 로비에 큰 공룡 모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 이 시대의 우리가 바라보는 공예는 이거야, 라는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시그니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윤경 팀장)

“요즘 하는 전시들 보면 공간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작품 하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간 연출이 대단한 전시들이 많은데 저는 공예박물관이야말로 그게 가능한 박물관이 되라고 생각해요.” (홍경아 학예팀장)

✓ 공간 사례 : 공간적 예술성의 극대화

-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박물관 및 전시 사례를 살펴보면 공간 자체만으로도 예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해 전시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 관객까지 아우르며 방문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있음

〈뮤지엄 산〉

- 건물뿐 아니라 부지 전체를 뮤지엄으로 만들어 자연과 예술에 대한 감성을 불어넣은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
-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품에서 문화와 예술의 울림을 만날 수 있는 전원형 뮤지엄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연(하늘과 빛)을 적극 활용한 작품과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 속 박물관과의 차별성을 가짐

[그림 4-7] 박물관 〈뮤지엄 산〉 사진



〈대림미술관〉

- 사진 촬영 및 인스타그램들에게 최적화된 전시 기획 및 공간 활용으로 주목받는 현대미술관

[그림 4-8] 대림미술관 전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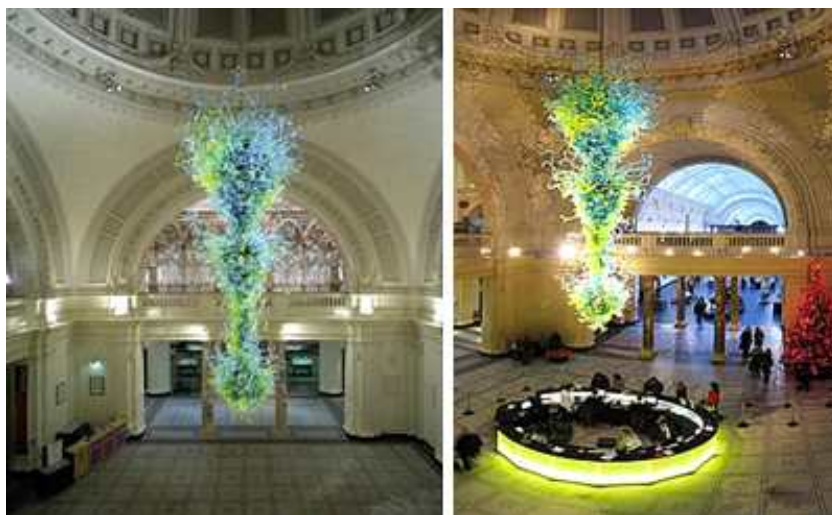
✓ 공간 사례 : 박물관의 상징적인 전시품

- 방대하고 포괄적인 범위의 자료를 다루는 박물관에서는 박물관만의 시그니처 전시품을 메일 홀에 전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정체성을 표현함

〈영국 런던 Victoria & Albert Museum〉

- 2001년 박물관 로비에 설치된 유리 조각가 데일 치홀리(Dale Chihuly)의 작품으로, V&A 상들리에라고 불림
- 이탈리아 베니스의 무라노 유리 전통공예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과 공예가 잘 어우러진 작품

[그림 4-9]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로비 속 V&A 상들리에 모습



〈영국 런던 Victoria & Albert Museum〉

- 2017년 NHM은 지구 상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로 알려진 ‘흰긴수염고래(Blue Whales) 조형물을 메인 전시공간인 Hintze Hall에 설치
- 고래의 이름은 ‘희망(Hope)’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인류의 힘의 상징함

그림 4-10] 런던 National History Museum 상징적인 조형물 ‘희망(Hope)’



- 공예는 전시 주제, 기획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표현이 가능한 분야이므로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 전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공예박물관끼리는 굳이 차별화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공예박물관 하나밖에 없잖아요. 국립박물관은 더 품격 있고, 더 넓고, 더 많은 역할을 하면 되죠.” (최공호 교수)

“현대미술도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데 리움에서도 현대전시하고 다 하잖아요. 공예도 여기저기 다 있는데 뭐 하려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갖고 있고 전시하는 게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시 주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해석하는 바는 되게 다르거든요. 민속박물관은 민속적으로, 사람의 삶에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고궁박물관도 황실에서 귀한 유물을 더 많이 다룰 것이고. 국립 공예박물관은 국립으로서, 공예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르게 있을 거라고 봐요.” (홍경아 학예팀장)

4.3 인터뷰 결과 종합

① 공예의 특성과 현재

- 국내 공예문화 현황 및 현안
 - 라이프스타일과 연결되며 점차 각광받을 것이며, 실질적인 현장 지우너책, 공예문화에 집중한 정책에 대한 필요가 높음
- 국립공예박물관과 공예의 특성
 - 공예의 일상성 및 경험적 특성을 강조하며 경계가 애매한 공예의 범주를 나누기보다 포용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함

②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및 목적성

-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 박물관의 가치와 역할에 동의는 하나, 설립 전 운영 및 활용의 부분에서의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
- 국립공예박물관의 가치 및 목적
 -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높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국립공예박물관의 조성 방향성

- 국립공예박물관의 조성 방향
 - 공예의 미래지향성과 문화적 가치에 공감할 수 있고 공예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공간, 더불어 사회와 연결되는 담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함
- 국립공예박물관의 지향점
 - 문턱이 낮고 일상적인 공간이자 공예 인식을 높이는 공간인 동시에 높은 예술적 가치나 창작자 지원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④ 콘텐츠와 기능성

- 핵심 기능 및 프로그램
 - 생활을 대변하는 아카이빙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전시 구성하고, 공예를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함

⑤ 입지와 공간

- 입지 요건 및 공간 제안
 - 공간 자체가 상징적이며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입지보다는 공간의 비전과 그곳을 채우는 콘텐츠가 우선이라는 지점에서 동의함

4.4 종합 시사점

- 공예는 라이프스타일과 매우 밀접해 접근하기 쉬우며 그 확장가능성 및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예문화의 지원이 요구됨
 - 공예의 개념과 범주는 매우 포괄적이며 전통 공예부터 향후 다양한 신소재와 특수 기술, 장비를 통한 작품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현재 공예의 정책적 관점은 산업에 보다 더 가까워 문화예술 측면을 다룰 수 있는 관련 정책 및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적합한 교류/인지도 제고/아카이빙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 공예박물관의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무조건적인 공간 설립 이전에 역할 및 운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국립적 차원 및 박물관 자체의 건립이 가지는 의의와 예측 가능한 가치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한편 무조건적인 박물관 설립에는 부정적임
 - 특히 공간 설립 이전에 어떠한 역할 및 목적을 가져가야 하는지, 설립 이후의 운영과 활성화에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세밀히 논의, 고민해야 함을 강조

- 교육적 목적이 점차 중시되고 있는 현대 박물관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 등 관람객 경험을 증대하는 방향성을 추구해야 함
 - 제도교육 이후의 사회교육을 확산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공예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문, 사회, 예술, 체험 등의 교육이 가능할 것
 -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기존 박물관과 달리 문턱이 낮고 친근한 공간으로서의 지향점이 필요함

- 공예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간과 전시 기획을 지향해 공예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에 기여가 필요함
 -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비되는 가치로서 삶과 예술, 사회적 문제 모두에 영감을 주는 공예의 실재와 그 문화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 전시의 기획과 기법이 다양하며 공간 자체로서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박물관으로서 국내 공예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5.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5.1 라운드테이블 개요

5.2 주요 이슈별 내용

5.3 이슈 종합

5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5.1 라운드테이블 개요

- ☐ 관계자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공유간담회)을 통해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과 실질적 제언을 확인함
-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 10:00 ~ 12:00
- ☐ 대상 : 공예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6명

[표 5-1] 간담회 참석 전문가

구분	인터뷰 대상	소속 / 특징
교육자	허보운 교수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 공예진흥정책 기초연구, 공예백서 등 책임연구원
기관담당자	최재일 본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본부 / 국가전담기관
지역공예문화 관계자	박원규 팀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비엔날레팀 / 청주공예비엔날레·공예페어 개최
박물관관계자	김정화 관장	서울공예박물관
산업연구자	최연수 소장	한국공예산업연구소 소장 / 중장기 전략 및 정책 수립 연구
창작자	윤지희 이사	한국공예가협회 금속공예분과 출판이사 / 장안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겸임교수

☐ 내용

- 공예계의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라운드테이블(공유간담회)을 진행해 심층인터뷰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했던 이슈 및 의견과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실제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국립공예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정체성, 목적성에 대한 방향을 수렴함

[표 5-2] 국립공예박물관 설립 관련 주요 이슈 및 안건(안)

이슈	주요 안건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예박물관에 대한 필요성과 그 이유 - 국립공예박물관의 목적과 시급성
국립공예박물관의 목적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의 역할과 기능 - 콘텐츠/프로그램, 위치와 상징성 등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 추진 방향성에 대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예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의 다양한 방향 - 향후 대중적 활성화 방안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견해 - 공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의견 제시

5.2 주요 이슈별 내용

5.2.1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 국립공예박물관의 상징성과 위상이 끼칠 긍정적인 영향력 기대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도 공예를 다루고 있으나 ‘공예’의 명칭/개념이 아닌 재료에 의해 분류되고 있어 비중과 전문성의 아쉬움 존재
- 국립 단위 공예박물관의 건립을 통해 공예 분야 전반의 인지도 및 관심, 비중의 상승 기대

“수많은 공예 전시품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예’라는 분류 자체가 없다는 게 공예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국립현대미술관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공예 전문 전시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루는 것도 공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예사 없이 ‘도자기’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존재하는 수준이거든요.”

“‘공예’라는 말 아래에 여러 공예 분야들이 모여야 해요. ‘도자기’ 따로 뭐 따로. 이런 식이 아니라 모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프로모션을 공유 브랜드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어떤 국립 기관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립미술관이나 국립디자인센터가 있는데, 왜 국립공예박물관을 얘기할까, 를 생각해보면 국립공예박물관이라는 어떤 국가가 주도하는 기관이 있을 때 그 기관에 부여되는 상징성? 어쨌거나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공예를 다루는 기관이 생긴다는 것이니 공예가들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나쁠 게 없겠죠.”

□ 공예·공예가의 부흥을 위한 고민의 선결 필요

- 공예가의 활동이 어려운 현장의 상황에서 운영 및 콘텐츠에 대한 고민 이전의 공간 설립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예가들과 동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저는 공예 분야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국립공예박물관이 생긴다고 해서 공예 분야가 엄청 활성화되거나 부흥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공예가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인지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공예박물관이 공예가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결과는 갈릴 겁니다.”

“박물관의 전통을 유지하고 보여주고 하는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현대 공예 작가들이 공예를 안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게 이어져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에 공예가들이 활동하지 않는데 공예 박물관만 있으면 어떻게 공예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국립공예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이곳이 공예가들과 공예 현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일 거라는, 그런 공예가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에요. ‘Craft’라는 개념은 사실 ‘만드는 것’인데, 만든 것의 결과물을 그저 가져다 놓고 보여준다고 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현장에 있는 공예가들이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설립 준비 필요

- 다양한 공예 연관 기관이 존재하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국립 단위 박물관이 산재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긴 건립 일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함

“박물관이 새로 건립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언제나 반가운 일이지만 서울공예박물관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쎄?’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예박물관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같이 고민을 나눠드리면, 공예와 관련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문체부에서 공예를 다루려고 하면 사실 국현에서 나서야 하는 일인지, KCDF나 국립무형유산원이 나서야 하는 것인지, 문화재청에서 나서야 하는 것인지 공예와 연관이 있는 국립기관이나 정책기관만 해도 산재해 있거든요. 기관 별 역할이나 업무의 분장이 선제적으로 필요하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립박물관단지가 조성되면서 ‘국립디자인박물관’을 국가 단위에서 세우는 걸로 결정 난 지 현재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삽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에 줄 서있는 박물관들이 참 많음에도 진척이 없는데 공예를 주제로 해서 또 다른 국립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국립공예박물관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꾸미고 어디서 수집할지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긴 시간을 고려하고 공예 분야의 현실을 봤을 때, 국립공예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5.2.2 국립공예박물관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가치

□ 공예의 흐름과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공간

- 일반 대중, 외국 방문객에게 한국 공예의 전반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의 부재함
- 공예의 역사와 흐름뿐 아니라 과거 전통공예부터 현대 공예까지 포함해 다룰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제가 활동을 하면서 공예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공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줄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공예는 미술사처럼 사조가 없는데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여기 가서 이거 보여주고 저기 가서 저거 보여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재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전통에서 시작하는 건 옳지만 **전통에서 현재까지의 공예를 같이 아우르는, 공예의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전통공예품만 보여준다면, 현대적으로 접목된 좋은 작품이 배제되는 거니 안타까울 것 같아요.”

□ 일반 대중에게 공예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기회

- 공예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함
- 대중들이 공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생생하게 드나드는 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음

“‘공예가 엄연히 우리나라 현실에 존재하는 분야인데 고작 이 정도로 취급되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예라는 카테고리가 오히려 점점 미래 사회로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예라는 이름을 가진 카테고리의 인지도를 좀 더 높이고 얘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박물관에 들어와서 공예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박물관은 그냥 박제와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은 ‘국박’의 분류 체계에서도 ‘공예’가 없다 보니까 그 많은 유물들 대부분이 공예품인데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인식을 못하잖아요.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도의 배려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 공예 생태계를 지원하고 키워가는 역할 기대

- 우리 삶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 공예 박물관을 아우르고 공예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공예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원료를 구하기 힘든 국내 재료 인프라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기능 필요함

“우리나라 공예가 세계적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그 재료들은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옷나무가 없고 전통 염료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걸 누가 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렵게 진짜 공예 생태계를 만드시는 분들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예라는 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만들었냐?’의 핵심은 재료이고, 재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공예인데 우리나라의 공예 재료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각 지방마다 작은 공예 전문 박물관들이 산재해 있어요. 자칫 공예가 도자, 나전 같은 것들만 포함한다고 여길 수 있는데, 지역 조사를 해보면 옹기박물관, 풀짚공예박물관 등등 사실 다 공예에 속하는 온갖 종류의 박물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요. 국립공예박물관이 생겨서 그들을 지원한다면, 이게 그들의 수장품들을 수집해오는 게 아니라 각 박물관들을 **대표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의 박물관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그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5.2.3 국립공예박물관에 필요한 콘텐츠와 기능성

□ 수집·콘텐츠보다 방향성 선제 고민되어야 할 필요성

-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을 먼저 고민해야 함
- 단순한 컬렉션의 전시에서 나아가 방문객의 입장에서 시대성에 부합한 다양한 방식을 찾아야 할 것

“박물관을 만약 만든다면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다룰 거냐는 문제는 긴 계획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공예품을 전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국립공예박물관이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박물관들이 있다고 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잘 고민해야 하고요. 단순히 컬렉션을 만들어서 진열을 잘 하고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곳에 와서 공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를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이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이곳을 알리는 데 훨씬 더 많이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전시하거나 하는 것, **만드는 사람의 입장도 중요한데 동시에 와서 보는 사람이 뭘 원하고, 뭘 우리가 전달해야 하고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 공예 정신과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전시 및 활동

- 결과물보다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공예가들의 ‘공예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 공예품의 스토리 전달을 단순한 시연 및 체험으로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전달방식 고민

“중요한 건 공예품들은 거의 다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작품 하나에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스토리가 녹아 있거든요. 결과물만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그걸 이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발전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고요.”

“공예가들은 애초부터 공예정신이라는 걸 배우고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를 돌려버리고 주문해버리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계속 앉아서 두들기고 있는 이유는 정말 공예 정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예라는 걸 이해하고 공예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예 정신을 뺄 수 없어요. 그걸 빼고 이해하려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공예는 사실 순수미술이랑 그 출발부터 관점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현대미술은 작품을 놓고 볼 때 ‘여기에 무얼 그렸느냐?’, ‘무얼 표현했느냐?’가 핵심 질문인 반면에 공예는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핵심 질문이라는 점에서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박물관

- 실감형 기술을 통해 원본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공간 효율성 기대 가능
- 국내 우수 기술을 활용해 공간적 제한에서 벗어나 공예의 기능성을 보여주고 차별점을 형성

“우리나라가 내세울 건 뭐냐면, ICT 기술이라고 봅니다. 지금 VR, XR 기반의 실감형 기술을 접목하는데, 단순히 체험형 박물관이라고 몇 개 데모식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런 VR, XR 기반의 실감형 기술 박물관들을 오프라인 박물관과 매칭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요. 공예는 기능적인 걸 보여줘야 하니까 이런 실감형 기술을 써먹기 좋겠죠. 사이버 박물관들을 만든 이유는 공간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원본의 가치, 그 오리지널 공예품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실제로 공간을 줄이는 효율성도 있긴 하고요.”

5.2.4 국립공예박물관의 입지 및 공간적 상징성

□ 시급성과 맞물린 위치와 규모 설정

- 단기적 관점에서 KCDF와 협력해 문화역서울284 등에 위치하는 방안을 제안
- 이후 독립된 박물관의 형태가 필요할 시 입지 및 규모를 논의는 것이 현실적

“이 국립공예관이 시급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진행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시급한 움직임을 갖는다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논하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입지를 논해봐야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으로서의 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역에 이걸 설치하다가 **향후에 단계를 거쳐 제대로 된 것을 만들 때야말로 입지가 중요해 지겠죠.**”

□ 지역 거점 공간으로서의 영향

- 지역 거점 박물관으로서 위치해 지역 내 관광 등 타 산업 분야까지 활성화 기대
- 지역 공예 생태계를 조성, 선도하는 역할로서 포지셔닝 제안

“한국의 또 다른 현실을 생각하면 지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물관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건 관광 분야와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방에서 정말 잘 운영한다면 그 지방의 다른 산업 분야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마다 온갖 종류의 공예를 하고 있는 생태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아예 다르게 생각하고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예 기반과 중심지를 지방에 잡아서 진행하면 최선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서의 비전

- 세계적으로 공예 테마의 국립 박물관은 경쟁력을 가지므로 세계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 세계적인 건축가의 건물로 위치한다면 랜드마크이자 관광지로서도 기대 가능

“국립이라고 했을 때는 한 번 해 볼만 하다고 봐요. 국립공예박물관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키울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제시해주면 전 찬성이예요. 빌바로나 아부 다비같이 최근 이슈가 되는 박물관을 보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몇 백만의 입장객을 끌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도시의 발전과 국가의 정체성을 연계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었죠. 예를 들면 장 누벨이나 프랑크 게리와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를 투입 해서 지으면 박물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박물관 건물 사진이라도 하나 찍으러 방문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흔하게 다루지 않는 ‘공예’라는 테마를 가진 박물관을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다시 말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공예만으로 세계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나라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5.2.5 국립공예박물관 사업 추진 방향성

□ 명칭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 외국의 포괄적인 Museum의 개념처럼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 제안
- 현재 전국 미술관 수가 박물관보다 훨씬 적으며 상대적으로 국립적 시스템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으로 ‘국립공예미술관’에 대한 가능성 제시

“우리나라에서 미술관과 박물관은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영어로는 ‘Museum’ 하나인데 이게 미술관도 되고 박물관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공예’라는 것 역시 상당히 범주가 작아요. 원래 ‘Craft’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디자인 쪽도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미술관과 박물관의 차이, 공예와 Craft의 차이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마다 국립박물관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미술관은 지방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도 서울에 2개, 전국에 4개밖에 없죠. 그 와중에 전국의 국립박물관들은 다 특색 없이 대동소이해서 특화시키려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특화를 위해서 미술관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합니다. 박물관의 개념이 예전의 근대적인 유물들을 전시하는 것이라면, 그것보다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예박물관’이 아니라 ‘국립공예관’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요.”

□ 단계별로 발전시키는 방향의 사업 추진 방안

- 점차 단계별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진행 필요
- 기존의 지명도 있는 국립단위 박물관 산하의 공예 전문 공간으로 시작해 이후 독립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 국립공예박물관으로 건립 추진

“저는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박물관들에 공예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또 따로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좁히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공예관을 따로 뒀듯이, 단계별로 추진해서 기존의 지명도 있는 박물관들 안에 하나의 공예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독립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혹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박물관들의 거점이나 허브, 플랫폼의 필요가 대두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정식으로 국립공예박물관을 세우면 되는 거죠.**”

“국립민속박물관도 국립박물관 산하였다가 분리되어 나오는 형태를 거친 것처럼 **공예도 그런 사이클을 거처서 몸집을 서서히 키워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과 연계, 확장하는 방안

- 이미 박물관의 역할 및 기능(연구, 전시, 지원, 인력양성 등)을 KCDF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역할을 확장시키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함
- 박물관 운영에 대한 KCDF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을 고려할 때 그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단계별 발전 기회로 활용

“저는 KCDF가 하는 일을 더 확장시키는 게 출발점이 되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KCDF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전시도 하고 있고, 작가들과 교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더 줘서 더 주목받고 더 크게 판을 벌릴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작품들도 나오고 많은 일들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KCDF에서 조력자 역할로 만족하는 건 아쉬운 일인 거죠. **박물관의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여기에서 다 하고 계시니 여기를 확 키우는 게 공예가 발전하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요?**”

“진흥원이 그냥 일반 단체에서 국가 전담 기구로 커지니까 위상도 높아지고 수반되는 예산과 지명도도 커졌어요. 이것처럼 **그릇을 만들고 음식을 채워야 하는데, 박물관같은 모태가 없다 보니 진흥원에게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레벨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대로 된 건물도 지금은 없는 상태지만 이런 식으로 그릇을 만들어 줘서 토대를 마련하면 노하우도 쌓고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이렇게 진흥원 위상을 키워주면 공예 위상도 커지고 전국구를 대표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5.3 이슈 종합

①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 필요성과 기대

- 공예 분야 전반의 인지도 및 관심, 비중의 상승이 필요하며 국립 단위 박물관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기대됨

☐ 고려해야 하는 지점

- 공간 자체가 공예 및 공예분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며 긴 추진일정을 고려한 거시적인 관점 또한 필요함

② 기대하는 역할과 가치

☐ 역할과 가치

- 공예 생태계를 지원,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하고 공예의 흐름을 보여주고 인식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

③ 콘텐츠와 기능성

☐ 콘텐츠 · 프로그램

- 중요한 것은 전시품이 아닌 방향서이며 공예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전달방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④ 국립공예박물관의 입지 및 공간적 상징성

☐ 현실성을 고려한 단기적 입지

- 시급성과 역할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KCDF와 연계한 공간 활용을 제안함

☐ 입지 선정과 상징성

-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역에 위치한다면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⑤ 국립공예박물관의 사업 추진 방향성

☐ 공간 형태의 다양성

- 박물관 외에도 미술관, 공예관 등 다양한 공간형태까지 상상해서 특정한 명칭의 공간이 아닌 경계를 허무는 공간이 될 가능성

6. 제언과 추진 방향성

6.1 주요 논의 결과

6.2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점

6 제언과 추진 방향성

6.1 주요 논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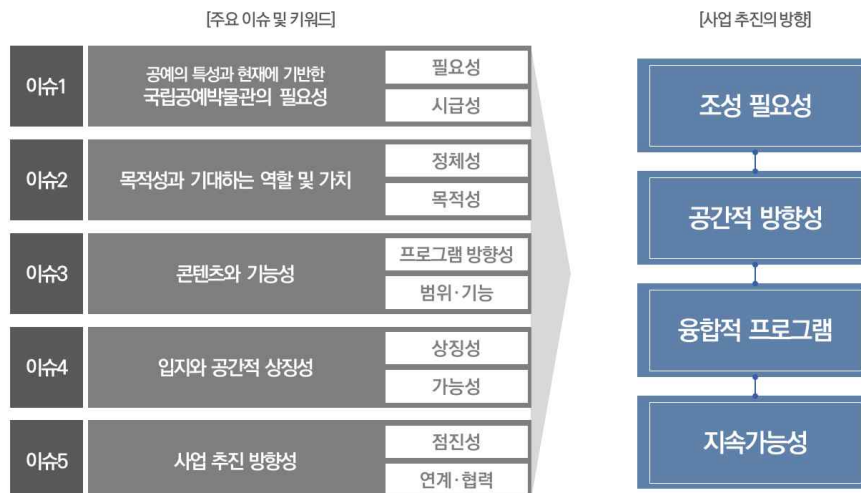
- 국립공예박물관 설립을 둘러싼 다섯 가지 이슈를 기반으로 정리, 추진 전제를 도출 하였으며 공간 설립 이전에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담론 형성이 주요함

[그림 6-1] 주요 이슈 및 키워드별 사업 추진의 전제

[주요 이슈 및 키워드]			[사업 추진의 전제]	
이슈1	공예의 특성과 현재에 기반한 국립공예박물관의 필요성	필요성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예의 전반적인 현황 및 필요를 고려했을 때, 국가적 단위에서 공예를 다루는 공간, 거점의 마련은 필요함 다만 당장의 시급성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식 제고와 동반되어야 함 	
이슈2	목적성과 기대하는 역할 및 가치	정체성 목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예 생태계를 지원, 선도하며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국가 대표 거점으로서 정체성 제시 작품 그 자체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공예 정신과 그 흐름의 구현 	
이슈3	콘텐츠와 기능성	프로그램 방향성 범위·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연구적 기능 등 현재 공예 및 박물관 분야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 공예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다양한 장르 및 분야와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콘텐츠를 갖춘 공간 제시 	
이슈4	입지와 공간적 상징성	상징성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와 공간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넓게 보되 국가 거점의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임 공간 자체가 상징적, 예술적이며 세계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 	
이슈5	사업 추진 방향성	점진성 연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적, 점진적 사업 추진을 통한 실현 가능성 있는 조성 방향의 수립 국립무형유산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ODF) 등 공예를 둘러싼 다양한 연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 도출된 이슈 및 전제사항을 바탕으로 국립공예박물관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추진 방향성을 제시함

[그림 6-2] 도출한 이슈 및 전제사항을 바탕으로 한 추진 방향성



6.2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점

① 조성 필요성 : 공예 분야의 인식 제고를 동반한 국가적 위상을 가진 공간 필요

- 공예의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는 공간
 - 공간 조성을 추진하기 전에 ‘공예’ 개념의 대중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음
 - 대중이 공예의 개념과 경계에 대해 가지는 부족한 인식을 보완하고 우리의 삶과 가까운 친근한 공예를 알리는 소통과 담론의 장을 지향해야 함
- 현장의 다양한 필요에 기반 한 국가 거점공간 조성
 - 국립공예박물관이라는 명칭 아래 전형적인 공간의 조성보다 국가적이고 국제적 위상을 가진 공예 전문 문화공간으로서 가져야 할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
 - 박물관 및 학계에서 가지는 ‘공예’분야 자체의 비중 및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공예가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위상을 가진 공간이 필요함

② 공간적 방향성 : 기존 박물관의 경계를 허물고 공예정신이 종합적으로 구현된 공간적 정체성 정립

- 과정과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정신 구현
 - ‘국가적 위상의 공예 전문 공간’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작품 그 자체보다 ‘공예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진 스토리와 제작 방식에 집중하는 공예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 지향 필요
 -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방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공예정신을 방문객도 느낄 수 있도록 시연과 체험을 넘어선 콘텐츠 전달방식을 고려하고 공예만의 스토리적인 요소를 가미한 공간
- 경계를 허무는 공예 전문 문화공간
 - 박물관, 미술관이라는 기존의 공간적 개념과 경계를 허문 공예 전문 문화공간의 지향을 통해 공예 개념의 확장과 융합을 도모
 -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공간의 명칭과 다루는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문화공간을 표방하고 공예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다양한 장르와 작품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예 전문 공간을 지향함

③ 융합적 프로그램 : 공예 창작-소비-향유 순환 생태계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 구축 및 융합적 콘텐츠 도입

○ 연구와 교육 등의 기능이 보완된 복합전시공간

- 공예의 원재료, 제작 기술, 흐름과 함께 전승공예부터 현대공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공간이자 창작과 기술 개발 및 공유, 인적 역량 강화, 연구 기능 등을 수행하는 종합 공간으로서 공예 생태계의 순환체계 마련
- 한국 공예의 전통과 현재,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범위 설정과 함께 국내 공예의 원료 인프라와 제작 기법 등에 대한 원론적 연구 및 교육 기능의 보완을 통해 공예 생태계 발전을 선도하는 복합전시공간 지향

○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으로 공간 활성화 도모

- 국내 공예의 소비 및 향유 활성화를 위한 해외 교류 기회 확대, 융합적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콘텐츠 운영 및 공간 활성화 전략 필요
- IT 및 AR/VR/XR 등 현대적인 전시기법 및 콘텐츠의 도입으로 방문객의 흥미를 돋우고 해외 교류, 신진 작가 전시 등 다채로운 전시 및 수집 기회 확대로 재방문의 의사를 높이는 공간 활성화 전략

④ 지속가능성 :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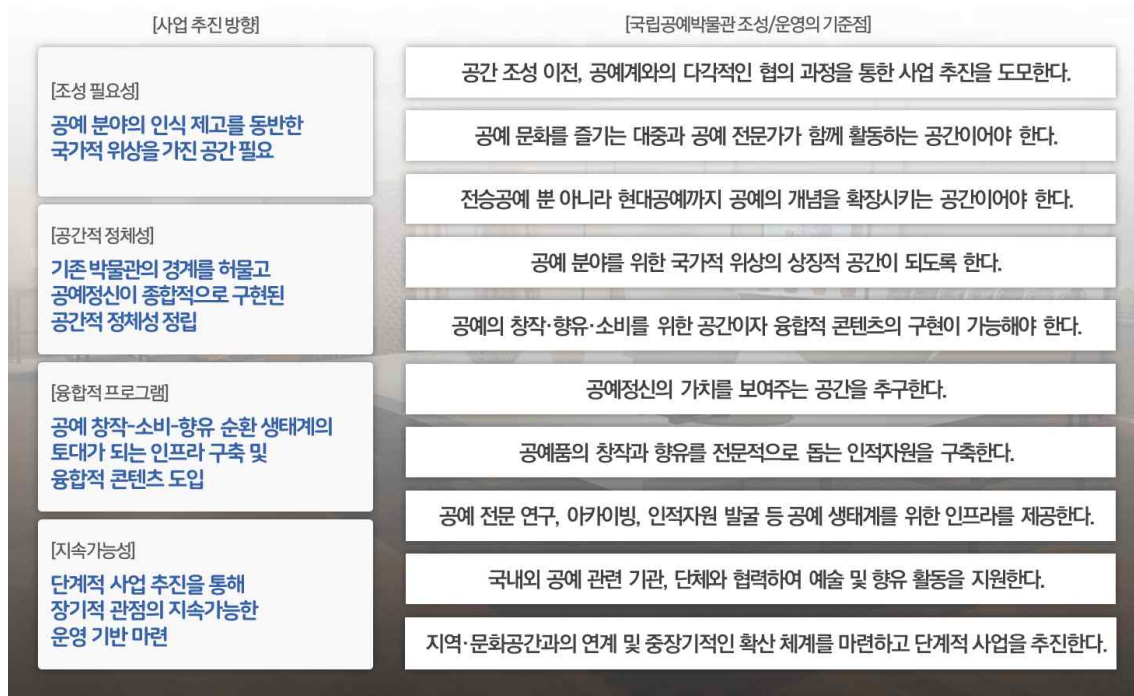
○ 중장기적 검토를 통한 단계적 사업 추진

- 단기적 의사결정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과 함께 단계적인 설립 방식 검토 필요
- 국가 단위의 박물관 설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 및 논의 과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독립적 박물관 설립 이전에 기존 시설 및 기관의 분원/기관 확대 등의 설립 방식 검토 필요

○ 연계 협력의 적극적 고려로 지속가능성 확보

- 공간적 방향성,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공론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 기존의 공예 활동 및 유관 기관과 연계 가능한 입지선정을 통해 공예 종사자와 대중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속성 확보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재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공예 관련 국립·정책기관과의 업무 및 역할 분장/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 기반 확보로 공간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속가능성을 마련함

[그림 6-3]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점



연구수행기관 (주) 메타기획컨설팅

연구총괄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본부장
연구책임	강희정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실장/선임컨설턴트
연구원	이성민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팀장/선임컨설턴트
	정예진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팀원
	양지안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어시스턴트